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앨 레이시 저 정동수 역



AI Lacy

Where Do Little Children Go When They Die?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앨 레이시 / 정동수

Copyright ©

2026년 3월 1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12,000원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으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Where Do Little Children Go
When They Die?”*

—Al Lacy —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거룩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역사를 진실하고, 그 결정 사항들은 바꿀 수 없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양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고,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현장이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네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네가 살아 있을 때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에 이 책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되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며, 그 안의 거룩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모두 지옥 불로 정죄할 것이다.



아빠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을 가져다준
내 사랑스러운 아이들
코니(Connie), 제프(Jeff), 켈리(Kelli)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특히 사랑으로 원고를 정리하고 타자를 쳐준
사랑하는 아내 조니(Joni)와 딸 켈리(Kelli)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앨 레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7-19)



Contents

현사	5
추천사	7
저자 서문	8
역자 서문	10
제1장 하나님의 유산	14
제2장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41
제3장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68
제4장 비성경적인 유아 세례	89
제5장 연자방아 맷돌	102
제6장 유산된 아이들	119
제7장 아이들은 천국에서도 아이들일까요?	129
부록 1 크리스마스에 대한 바른 이해	139
부록 2 부활절에 대한 바른 이해	149
부록 3 침례, 세례, 유아 세례	159
부록 4 성경 교리 문답	171



이 책의 저자 레이시(Al Lacy) 박사를 알게 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간 그와 알고 지낸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자 특권이었습니다. 레이시 박사는 줄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헌신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의 사역 또한 성공적이어서 그는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시에 큰 교회를 세워 줄곧 복음을 전해 왔고, 지금도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미국 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의 임무가 지역 교회에 주어졌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도하는 성경 집회에 크게 복을 주셨고, 많은 교회들이 다음 해의 부흥 집회도 인도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캐슬베리 침례교회에서도 두 번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우리는 매일 밤 성령님께서 권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혼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강성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이 흥미로운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나 실제로는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상심한 엄마나 아빠에게 성경에 있는 해답을 알려 주어서, 그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자신들의 ‘보물’이 하늘에 있음을 확신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레이시 박사는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모든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그는 오로지 성경에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라고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고 비교하셔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스코티 알렉산더(Scotty Alexander) 캐슬베리 침례교회 목사



저자서문

한 사람의 목사요 복음 전도자로서 일하는 동안 저는 사람들 — 그들이 구원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로부터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아 왔습니다. 질문의 주제는 매우 다양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성경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답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알려 주시는 것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수많은 질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주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성도, 목사, 교회 지도자, 심리학자,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을 통해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은 자연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어린 자녀를 잃은 뒤 너무나 울어서 눈이 빨갛게 된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로를 구했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슬픔의 시간 속에서 어떤 위안 혹은 지푸라기 같은 소망이라도 불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막상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생님의 아이는 하늘(천국)에 있을 것”이라 소망합니다.”이거나 “우리는 선생님의 아이가 림보¹(Limbo)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존스 부인, 부인의 아이는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지옥의 가장 차가운 부분에 있다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대답이 무슨 위로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1. 「카톨릭 교리 사전」(박도식 역음, 카톨릭 출판사)에 따르면, “림보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이 가는 곳으로 여기에는 천국의 복은 없고 다만 자연의 행복만 있는 곳”.

이 세상의 죄로 인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처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분도 아버지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아들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이 골고다에서 죽는 동안 상아 궁궐 마루를 눈물로 적셨던 그분께서 땅 위에 있는 부모들의 가슴속에 사무쳐 있는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섬세하시고 사랑과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다 같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함은 있습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그때 저의 사랑하는 아내의 태 속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심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새 그 꽃이 하늘의 정원을 가꾸시는 분의 손에 들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그 꽃을 하늘에 있는 자신의 정원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있는 다른 작은 꽃들과 함께 심어 놓으셨습니다. 새 생명이 자기 안에 움틀 때 느끼는 엄마의 기쁨을 우리 아빠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오르기도 전에 꺼져버린 어린 생명으로 인해 겪는 엄마의 슬픔과 아픔을 또한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영영 돌아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내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던 슬픔의 빛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자 아내의 얼굴은 이내 기쁨과 평안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제게 잊지 못하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힘겨운 인생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는 저와 사랑하는 아내 조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맡겨 주신 세 아이들이 함께 하늘의 정원을 거닐게 되겠지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가족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텁스럽게 피어 있는 그 작은 꽃을….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같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도 그러하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시 127:3-5)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기록들을 알았는데 그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4-1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관한 교리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 하면 어른들을 많이 생각하며, 어린아이들이 구원받는 점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같이 귀중한 영혼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가정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로 아이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독자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으로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이 합당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놀라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시려고, 어린아이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에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또 고의로 무시하기 때문에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본서는 철저한 성경 신자이면서 유능한 성경 교사인 레이시(Al Lacy) 목사님의 책 「Where Do Little Children Go When They Die?」를 옮긴 책입니다. 아이들

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풍성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역자는 몇 가지 부록을 함께 실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부록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숙해야만 합니다. 매일 남의 이야기를 듣고 배운 것들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똑바로 서서 걷고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역자는 이를 위해 본서 뒤에 우리 성도들이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책들도 몇 가지 주제별로 나열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세 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크리스천이 되게 해 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¹

그리고 본서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여러 형제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꼼꼼히 교정해 주신 사랑침례교회의 김지훈 형제님과 여러 형제자매님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데,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대로 행하려는 이들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따라 걸으려는 소수의 무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드립니다.

인천에서 정동수

1. 처음 번역 후 약 25년의 시간이 흘러 이 책을 다시 펴내는 2026년 현재, 세 딸은 모두 결혼해서 저는 3명의 사위와 7명의 손자손녀를 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트먼 존슨_기도하는 아이

J. Eastman Johnson

**Where Do
Little Children Go
When They Die?**





하나님의 유산

God's Heritage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같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도 그러하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시 127:3-5)

어린아이는 주님께서 주신 유산(遺產)입니다! 젊은 부부라면 대개 ‘태의 열매’가 자기 가정에 주어질 때 가장 기뻐합니다. 부모에게 있어 그 아이는 어떠한 책임을 의미하기에 앞서 하나의 큰 복입니다. 창조주 자신의 생각과 손길에서 나온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 외에 이 경이로움을 달리 표현할 길이 있을까요? 서로 손을 잡은 채, 갓 태어난 아기의 보금자리를 들여다보는 젊은 부부라면 과연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유산입니다!

창세로부터 아기들이 가정에 태어날 때마다 수없이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 역사상 첫아기인 가인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최초의 엄마가 된 이브의 가슴속에 생겨난 기

쁨이 어떠했을까요? 얼굴에 드러난 그 행복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
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창 4:1)

여기에서 독자께서는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와 격앙된 목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브는 자신의 아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지어 준 이름 역시 그녀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가인이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자연적인 출산의 과정을 거쳐 태어났지만, 이브는 창조주로부터 그를 얻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에 가져다주는 행복과 기쁨은 모두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타닥타닥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발소리, 까르륵하는 어린아이의 행복한 웃음소리나 양증맞고 통통한 손에서 나는 박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가정은 무척이나 허전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삶이 어렵거나 앞날이 불안하게 느껴졌을 때,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천진함을 보고 귀여운 재잘거림을 들을 때면 우리 부부는 새로운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날들의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때면 어느새 내 안에 밀려드는 복받침으로 목이 메고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큰딸인 코니가 두 살 때 일입니다. 코니의 엄마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는 동안 아이와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아이는 소위 ‘아빠 돌보기’(Daddysitting)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니는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중 몇 분이 지났을까, 코니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더니 제 목을 감싸 안고는 볼에 입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게 특별해요!”

아직 세 살도 안 된 어린아이의 이러한 행동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코니는 이미 스물한 살이 되었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그 아이에게 매우 귀중한 남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아이는 저를 ‘특별한 아빠’로 부릅니다.

지금은 스무 살이 된 제 아들 제프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가 좋지 못한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프는 이러한 사실뿐만 아니라 제가 그에 관해 묻는다면 간단히 거짓말을 해서 회초리를 면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제프를 제 앞에 불러다 놓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을 아이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제프가 그것을 부인해 버린다면 저는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증명할 수 없을 터이고, 결국 그 아이는 유유히 제 앞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외적인 어떤 별을 받지는 않겠지만 아이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겠지요. 반대로 아이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의 양심은 편안해질 터이나 그의 엉덩이는 여지없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뜨거운 양심인가? 뜨거운 엉덩이인가?

마침내 아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제프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아랫입술을 열었습니다.

“네, 아빠, …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또한 아들 녀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아이가 올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매를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는 이미 제게도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매를 들겠다

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슬슬 사정을 보아주면서 덜 혼낸 적도 없었지만, 이번에 그가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예외를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매를 다 때리자 제프는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말입니다.

마음이 좀 진정되자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팔을 내밀어 아이를 안아 주었고 제프도 아빠에게 꼭 매달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새 동전 하나를 꺼내 제프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제프…, 아빠는 널 때린 일을 후회하지 않아. 대신 자, 이 동전은 말이지, 네가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빠가 주는 거란다.”

그러자 아이는 동전을 꼭 쥐어 들고는 문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몇 분이 지난 뒤 제프는 되돌아왔고 전 아이의 뺨에 생긴 눈물 자국을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아이의 눈망울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전 고마워요!”

자, 이제 우리 막내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켈리는 열여섯 살입니다. 이 일은 막내 켈리가 다섯 살 때 생긴 이야기입니다. 일요일 아침 예배가 끝난 뒤 우리는 교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설교 시간에 제 딸 켈리가 고집이 워낙 세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 아이는 언니 오빠와 함께 뒷좌석에, 그 것도 마침 운전을 하던 제 바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저는

두 개의 작은 손이 제 목 밑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켈리가 자기 얼굴을 제 옆에 바짝 붙였기에 저는 제 귀 근처에서 그 아이의 따뜻한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니?”

“오늘 아침 설교 시간에 아빠가 한 이야기 말인데요… 아빠는 사실대로 말한 건가요? 아니면 단지 설교를 한 건가요?”

사실 설교할 때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주제로 해서 예를 들곤 합니다. 이외에도 이 아이들과 관련된 소중한 추억들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말입니다. 그로 인해 저의 가정은 아이들만이 줄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진 적이 없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제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자녀들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시 127:5)

양 떼를 먹이고 돌보면서 지낸 여러 해 동안 저는 수많은 일을 겪었고 그중에는 쓰라리고 아픈 경험도, 달콤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신선히 고도 감미로운 경험의 순간에는 늘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게 예쁜 카드나 그림, 선물 등을 주었고 지금도 저는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입맞춤 혹은 포옹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저의 많은 짐을 덜어 주었습니다. 저는 시편 기자의 말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로 가득한 교회의 목사는 참으로 행복하다!”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이곳저곳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전역과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문자 그대로 사랑에 빠지곤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전도 여행을 빛나게 해 준 여러 가지 선물과 노트, 사진, 밸런타인데이 선물, 풍선껌, 사탕, 우편엽서 등을 모아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린아이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어린아이들은 똑같다는 점입니다. 피부색과 상관 없이, 문화나 지형적 조건과는 관계없이 아이들은 모두 정직하고 단순하며 겸손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과 애정과 친절함에 쉽게 반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사랑과 친절을 백 배 이상으로 되돌려줄 줄 압니다.

얼마 전에 저는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천막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카를로스였고, 집회 중 말씀을 통해 칼로스의 엄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집회 시간을 전후로 하여 카를로스는 먼발치에 서서 저를 계속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밤, 제가 설교를 시작하러 일어서기 전에 그 교회의 목사님은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떠나게 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저는 시계를 들여다보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끄덕여 목사님께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고는 성경책을 집어 들고 밖에서 기다리던 차를 향해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카를로스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웬지 목이 메어 왔습니다. 카를로스는 곧장 달려오더니 두 팔로 제 가슴을 안고는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단어라 해 봤자 ‘치와와’(개 종류)나 ‘타코’(멕시코 음식), ‘토르티야’(둥글넓적한 옥수수빵) 정도입니다.

그러나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에서, 그리고 나를 껴안은 두 팔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 어머니가 구원받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껴안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끌꺽 삼킨 다음 올 먹이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카를로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 아이는 영어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꼬마 친구는 도로 한가운데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제 가슴속에 간직해 둔 추억 앨범의 한 면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시카고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일곱 살이나 여덟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카락은 길었고 마치 밤하늘처럼 새까맸습니다. 소녀는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습니다.

“레이시 박사님, 박사님께 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그 안에 든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뺏뺏하고 곱게 접힌 1달러짜리 지폐였습니다. 그것을 내밀 때 보았던 아이의 까만 눈동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소녀의 옷을 보니 깨끗이 빨았으나 여러 군데 해진 곳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돈이 필

요한 사람은 정작 그 아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처음에 저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이의 상냥한 얼굴과 그 반짝이는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정중하게 거절한다 해도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구부려 아이가 주는 선물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그러나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힌 채 대답했습니다.

“에이미예요.”

저는 그 아이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에이미,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사실 1달러는, 보잘것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그 아이의 사랑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어린아이들로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시편 기자의 말은 지금도 퇴색되지 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 귀한 어린 생명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안에 자신의 본성을 깊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가령 농부나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물들이 자기 새끼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이 본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러한 사랑이 나올까요? 저는 이러한 사랑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

로부터 나온다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 안에 심긴 본능적인 사랑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어린것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속성은 특히 그분께서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 안에서 확인해 드러납니다. 가장 부패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빛나지 않을 뿐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의 애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또한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내게 아이들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창 30:1)라고 말했던 라헬의 절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자신의 속사정을 낱낱이 고백했던 한나를 기억하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봅시다.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오 군대들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삼상 1:10-11)

사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그녀의 태를 닫아, 그녀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 19절에서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으므로”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한나가 보여 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열왕기상 3장 16-28절에서도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를 데리고 두 명의 엄마가 솔로 몬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창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서고 한 여자가 이르되, 오 내 주



귀스타브 도레_솔로몬의 재판

여, 나와 이 여자가 한집에 거하는데 내가 집에서 아이를 낳을 때에 그녀가 함께 있었나이다. 내가 해산한 뒤 셋째 날 이 여자도 해산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있었고 집에 있던 우리 둘 외에는 우리와 함께한 낯선 자가 집에 아무도 없었나이다. 이 여자가 자기 아이 위에 누우므로 밤에 그 아이가 죽으니 그녀가 한밤중에 일어나 주의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옆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일어났는데, 보소서, 그가 죽었나이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보소서,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니라. 이에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살아 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요,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라, 하니 이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요, 살아 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므로 그때에 왕이 이르되, 한 여자는 말하기를, 살아 있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요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라, 하고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요 살아 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이 이르되, 살아 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한 여자에게 주고 반은 다른 여자에게 주라, 하니라. 그때에 그 살아 있는 아이의 어머니인 여자가 속 중심에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겼으므로 왕께 말하여 이르기를, 오 내 주여, 살아 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그 *아이*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며 그 *아이*를 나누게 하라, 하므로 그때에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살아 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판단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왕상 3:16-28)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에서 솔로몬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자기의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여 지혜롭게 판결했습니다. 자기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기의 진짜 엄마에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주셨음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엘리야를 통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에게 숨이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며, 주께서 내가 체류하고 있는 집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한 해악을 가져오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린 뒤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며,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 그가 살아났으므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취한 뒤 방에서 집으로 데리고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 있으니라, 하니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왕상 17:17-24)

이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아이가 자랐을 때에 하루는 수확하는 자들에게로 나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므로 그가 한 소년에게 이르되,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그 소년이 아이를 취해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아이가 정오까지 그녀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으니라. 그녀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는 그의 뒤로 문을 닫고 나와서 자기 남편을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 중 한 명과 나귀들 중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오늘은 월삭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어찌하여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느냐? 하매 그녀가 이르되, 일이 잘되리이다, 하고는 이에 나귀에 안장을 얹으며 자기 종에게 이르되, 몰아서 앞으로 가라. 내가 네게 명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해 모는 것을 늦추지 말라, 하고 이렇게 그녀가 가서 갈멜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다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녀를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보라, 저기

에 그 수넴 여인이 있도다. 원하건대 이제 달려가서 그녀를 맞이하며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잘 있느냐? 네 남편이 잘 있느냐? 네 아이가 잘 있느냐? 하라, 하였더니 그녀가 대답하되, 잘 있나이다, 하고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으니라. 그러나 계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녀를 밀어내려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녀의 혼이 그녀의 속에서 괴로워하니 그녀를 기만두라. 주께서 그것을 내게 숨기시고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그녀가 이르되, 내가 내 주에게서 아들을 바라더이까? 내가 말하기를, 나를 속이지 마소서,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그때에 엘리사가 계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동이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네 길로 가라. 네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에게 인사하지 말고 누가 네게 인사할지라도 다시 그에게 응답하지 말며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므로 엘리사가 일어나 그녀를 따라가니라. 계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기색도 없으므로 그가 돌아와 엘리사를 맞으며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니, 보라, 아이가 죽어 자기 침상에 누워 있으므로 그가 들어가 자기들 두 사람 뒤로 문을 닫은 뒤 주께 기도하고 아이 위로 올라가 그의 위에 엎드린 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펴니 아이의 살이 따뜻하게 되니라. 이에 엘리사가 돌아서서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올라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펴매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므로 엘리사가 계하시지를 불러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하니 이에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녀가 엘리사가 있는 데로 들어가니 그가 이르되, 네 아들을 들어 올리라, 하므로 그때에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한 뒤 자기 아들을 들어 올려 안고 나가니라. (왕하 4:18-37)

하늘 아버지께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내려다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약 1:17)

여러분은 혹시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갖다 놓으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따스한 햇살과 한줄기 소나기, 비 간 뒤 생기는 아름다운 무지개와 진흙 웅덩이, 기어 올라가라고 주신 나무들, 따다 엮어서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라고 피어 있는 탐스러운 꽃들, 맘껏 뛰놀 수 있는 넓은 들판…, 사내아이들에겐 개구리, 두꺼비, 벌레, 잠자리, 송충이(역시 이러한 것들이 어울리겠지요?)가 있고 또 그것들을 집어넣기 위한 주머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요, 친히 마련해 놓으신 놀이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내아이들을 위해 여자아이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내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을 골려 주기를 좋아하며 뱀을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아이들을 위해 사내아이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아이들의 마음속에 짓궂은 사내아이들(주로 개구리, 두꺼비, 벌레, 송충이 등을 가지고 놀기를 더 좋아하는)과 함께 소꿉놀이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자아이들을 능가하는 인내와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뱀, 뱀이다!”

“꺄악–!”

이렇게 여자아이가 소리 지르며 징그러운 뱀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동안…, 시간은 지나가고…, 어느샌가 그 사내아이는 여자아이와 함께 앉아 소꿉놀이 (즉, 가정을 꾸밈)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그들을 보는 것만도 하나의 기쁨이요, 복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특히 동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동물원, 서커스 혹은 주변의 애완동물 센터에서 애완동물을 보며 손뼉 치고 즐거워하는 모습, 새로 사온 강아지와 함께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일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연필과 종이를 주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려 보라

고 해 보십시오. 십중팔구는 동물을 그릴 것입니다. 장식품 가게에 가서 “아이의 방을 꾸미려면 무엇이 좋을까요?”라고 주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인은 곰이나 강아지 혹은 다른 동물 인형들을 추천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동물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사진, 스티커 등은 어린이들을 위한 훌륭한 장식품입니다. 곰, 돼지, 말, 사자, 호랑이, 양,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 당나귀 인형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있을까요. 물론 살아서 움직이는 애완동물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동물을 깊이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독자께서는 우리가 천년 왕국에 살게 될 때 어린아이들이 늑대, 양, 표범, 가축들, 곰, 사자 등과 함께 뛰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독사와 함께 놀아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는데, 정말일까요?

이리도 어린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 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 11:6-9)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큰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 보십시오.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의 먼지 나는 길 위를 말입니다. 길을 가실 때마다 그분 주위로 몰려드는 어린아이들, 친히 자신의 팔로 그 아이들을 안으실 때 보여 주신 그 사랑과 관심을 눈여겨보십시오(마 19:15; 막 10:16; 뉘 9:47). 시장에서 함께 뛰노는 어린아이들을 보셨을 때 그분의 눈 속에 있었던 빛과 그 입가에 드러난 미소를 주목해 보십시오(마 11:16). 이처럼 아름다운 장면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린이들을 향한 큰 사랑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 위에 먹구름이 덮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노여움의 빛이 서려 있고 그 입에서는 질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 동편에 계실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으므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막 10:13-16)

분명히 마가는 “예수님께서 심히 불쾌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주님의 열두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강둑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그 군중을 되돌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에 귀한 아이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분의 가슴속에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아이들의 부모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매우 예민한 것이 둘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개입니다. 아이들과 개는 이 점에서 서로 너무 비슷하므로 함께 잘 어울립니다. 그들은 무척 민감합니다. 특히 사랑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그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방금 읽은 성경 구절 속에서, 저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에 드러난 실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제자들의 못마땅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의 귀

는 거친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그들 중 몇몇이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다란 아저씨들은 자기들을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두 제자들의 행동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으며, 의심의 여지없이 아이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빌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이 아저씨들에게 화를 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누가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뒤 아이들은 예수님의 목을 감싸며 그분의 양쪽 볼에 입을 맞추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분께서]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막 10:13-16)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사람을 세 종류의 연령층(어린아이, 젊은이, 그리고 어른)으로 나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adults)에 대해 언급할 때 성경은 ‘여자’(woman, 딤전 2:12)나 ‘남자들(혹은 일반 사람들)’(men, 롬 1:27)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젊은이들(십 대와 이십 대 초반)에 대해 언급할 때는 반드시 ‘젊은 여자들’(younger women, 딤전 5:14)이나 ‘젊은 남자들’(younger men, 딤전 5:1) 같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언급할 때는 여자의 경우 ‘소녀’(maid, 마 9:24)나 ‘처녀’ 혹은 ‘미혼 여성’(damsel, 행 12:13)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소년’(lad, 요 6:9)과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나이 든 아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살이었을 때, 성경은 그분을 아이(child, 눅 2:42-43)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이가 적은 아이들은 보통 ‘유아’ 혹은 ‘소아’

(infant, 늑 18:15) 혹은 ‘어린아이들’(little children, 마 19:13)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모로 어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한 남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봇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은 자였는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의해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리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손발이 수의로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수건으로 묶였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 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 11:1-7, 17, 39-44)

죽은 자들로부터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에 대한 자신

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역시 죽은 자들로부터 한 젊은이를 살려 내십니다.

그다음 날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한편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하더라.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며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는 자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앓아서 말하기 시작하므로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눅 7:11-15)

죽은 자들로부터 이 젊은이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구원자께서는 젊은이들에 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분의 가슴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랑의 원을 완성하기 위해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셔야 했으며, 죽음의 잠으로부터 한 아이를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 이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보라, 회당 치리자들 중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으니 원하건대 오셔서 그녀에게 악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그녀가 살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회당 치리자의 집에 가사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倨,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는 말이라. 즉시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녀가 열두 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

이 크게 놀라고 놀라므로 (막 5:22–24; 38–42)

죽음으로부터 이 소녀를 일으키심으로 구원자께서는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귀중한 어린아이들이 다음과 같이 참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인자하신 성령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결코 성경을 지은 저자가 여럿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기는 했지만(many writers), 저자는 단 한 분(one Author)뿐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벧후 1:20–21)

한편 이것들은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일으켜진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삼하 23:1–2)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행 1:16)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어린아이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지으신 그분께서는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들의 어린 시절을 빠뜨리지 않고 생생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만일 성경에 이삭, 야곱, 에서, 모세와 사무엘 같은 인물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성경의 풍성한 맛이 얼마나 사라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일도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나누려 했던 인정 많은 어린 소년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보여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기록을 통해 예수님의 아기 시절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하셨지만, 열두 살부터 그분의 공생애 이전까지의 삶(즉, 10대와 20대의 삶)은 완전히 숨겨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경의 저자께서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어린아이들의 관계를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 이니라. (막 10:14)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는, 이를 기록해 두셨는데 그 안에는 매우 놀랍고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니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마 11:25-26)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일깨우사, 성숙하고 교육받고 계몽되었으며 경험 많은 어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잘 받아 사회에서는 지식인이고, 현명한 사람으로 존경받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들을 우리는 많은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영원에 관한 한 완전히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가정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줄 아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풍성함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자기들의 작은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들이기에 참으로 의미 있는 것에 관한 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부모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보면 교실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소년 소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구원받지 못한 교사들이 서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사실 구원받아 거듭난 아이들이 그들의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의 증언들이 내 묵상거리이므로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깨달음이 있고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므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시 119:99–100)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린아이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많은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저는 종종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영적 감각이 훨씬 더 뛰어남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보여 주는 예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동요되어, 이분이 누구시나? 하고 말하

므로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마 21:9-11)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에서 온 대언자 정도로 알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humanity)만 보았을 뿐, 그분의 신성(deity)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음성의 주인공들은 나중에 “그를 집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그 사람들의 호산나 소리는 그리 길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단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서 내리시자마자 “호산나!” 하며 외치던 소리는 사라져 버렸고 무리도 흩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시끄러운 호산나 소동이 가라앉자 자신들이 하던 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작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도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길가에 있는 욕심 많은 도둑들을 내쫓으시며 돈이 놓인 탁자들을 걷어차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분에게 매료된 채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분께서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 주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 계단에 서서 몰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신실한 무리는, 참으로 자기들이 외친 바, 즉 그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군중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지각은 예루살렘의 어른들 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신학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지혜자들처럼 현명한 그런 어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면 조금 전에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마 21:15-16)

아이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큰 영적 진리들을 보여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찬양이 아이들의 입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복되신 성령님께서는 이 극적인 사건들을 조심스럽고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셨으며, 이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장의 첫머리에서 저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하늘에 있는 다른 존재들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함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즉, 하늘의 천사들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인데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아 줍니다.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 18:10)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묘사하시면서 ‘그들(아이들)의 천사들’(their angels)

이라고 하신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이는 어린아이마다 최소한 천사 하나가 팔려 있어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해 준 말을 통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천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천사들은 어린아이들의 생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천사들은 이 세상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고 네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눅 1:19)

시편 91편 11절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호 천사들이 있어서 어떤 위협이나 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시 91:11)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하늘의 존재들은 ‘시중드는 혹은 봉사하는 영들’(ministering spirits)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 1:14)

그런데 천사들이 누구를 위해 봉사할까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히 1:14)

위의 성경 말씀들을 모두 정리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그를 돌보도록 한 보호 천사

를 배치시키십니다. 그 아이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된다면, 그 보호 천사는 그에게 불어서 일생 동안 그를 지켜 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이가 일흔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면 계속해서 보호 천사가 그를 돌보아 줍니다.

다시 한번 위의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미래 시제임, shall be heirs of salvation)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영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거듭나야 상속자가 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나이에 이르고(제2장 참조),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리 아심(롬 8:29; 벤전 1:2)을 통해 그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으리라는 점을 알게 될 때 그 천사는 그 아이를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당신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이 같은 보호는 당신이 죽어 하늘에 가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 줍니다. 그러한 감정들 중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천사들이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 그들을 실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모두가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유산이다!”라는 데 동의합니다(시 127:3).



휴그 메를_공원에서 노는 아이들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Where Do the Little Ones Go When They Die?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창 2:7)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살과 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살아 있는 두 혼’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 1:28)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담의 후손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 5:3)

아담이 ‘살아 있는 혼’(living soul)이었던 것같이 그의 후손들도 다 ‘살아 있는 혼’입니다. 독자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창 1:26-27)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 중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분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혼의 불멸’(the immortality of the soul)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질 수 없는 존재이듯이 사람의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일어나면 사람의 혼은 어디론가 가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그 혼은 영원토록 의식을 가진 채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같은 기본 진리들을 부인하는 종교나 사교(邪敎)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혼은 부활의 때까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은 모두 지옥에 가되 불꽃 속에서 소멸되어 그 존재가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무덤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진리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마 17:22–23)

그 후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고 죽임당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요,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
히리라, 하시니라. (마 26:1–2)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십자가형을 말씀하셨고, 자신의 죽음도 말씀하셨으며, 자신이 죽은 자들로
부터 되돌아올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계바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
에 그분께서 오백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때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고전 15:3–6)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그리고 부활
에 관한 성경적 증거 및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
든 일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요 14:19)

그분께서 죽음으로부터 되돌아오셨다는 사실은, 죽음이 사람의 혼의 종말
이 아님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존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문자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이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일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그분께서는 자기 옆에 있는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채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두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눅 23:42)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날 낙원에서 회개하는 강도를 만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죽음, 매장, 그리고 부활에 관해 진실을 말씀하셨다면, 그분께서 그날 그 강도를 낙원에서 만나시겠다는 말씀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은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잠을 잔다는 주장을 무효로 만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그 강도는 그날 낙원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것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6–8절에서 “죽는 것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무덤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 그리고 부자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는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불 속에서 타고 있었지만, 결코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을 가진 채로 영원히 고통당함

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계 14:11). 따라서 ‘사람의 혼의 소멸’을 가르치는 이론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혼은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제6장에서 우리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과연 아기가 언제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 있는 혼”(a living immortal soul)이 되는가에 대해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이미 말한 대로 “아이가 죽더라도 그의 혼은 살아 있으므로 어디론가 간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림보’라든지 ‘연옥’ 같은 곳에 대해 성경은 단 하나의 증거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도 그러한 곳이 있음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 카톨릭 사제나 신도들을 만나 제 성경이나 그들의 성경에서 그러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가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딱 두 군데뿐입니다. ‘하늘[천국]과 지옥’(Heaven and Hell). 이는 유아나 어린아이들도 죽으면 하늘이나 지옥 그 둘 중 하나로 가게 됨을 말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나 지옥에서 의식을 지닌 채로 영원을 보내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경우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직시합시다. 즉, 어린아이들도 죽는다는 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때때로 유아나 어린아이들을 위한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장례식에는 특별히 슬픔이 더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직 삶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작은 무덤 옆에 나타나신다면 그분께 손가락질하며 그분을 비난할 사람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무서운 충격과 에는 듯한 가슴,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 그리고 밀려드는 외로움을 이해합니다. 또한 저는 남아 있는 가족들이 다시는 이 세상에서 그 아이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진다는 점도 이해

합니다. 이 모든 감정은 매우 정상적이며 당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 아래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취하신 뒤 그것을 위로 옮겨 심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옛 죄로 인해 저주받은 사악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빌 1:23).

자, 그러니 어린 자녀가 죽었다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 맙시다. 이제 그 아이는 결코 아픔이나 병, 슬픔, 상심 등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의 품으로 돌아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들과 하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아나 어린아이가 죽는 즉시, 천사들이 그들을 하늘로 데려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가장 설명을 잘해 주는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봅시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 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록!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 내어 네에게서 던지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걸

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네게서 던지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 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오니라.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아흔아홉 마리를 남겨 두고 산들로 들어가 길 잃은 것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해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 18:1-14)

자, 지금부터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살펴봅시다. 매우 심오한 성경의 진리들이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신약 성경에서 ‘아이들’(children)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의 그리스 단어가 ‘아이들’로 번역되었는데, 하나는 ‘파이디온’(paidion)이고 다른 하나는 ‘테크논’(teknon)입니다. 이 중에 ‘테크논’은 성별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용례로 ‘자손’(offspring)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용례를 살펴봅시다.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아이(teknon)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눅 1:7)

위 구절은 단순히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자손(남자든 여자든)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teknon)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막 12:19)

이 구절에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 죽으며 자손(남자든 여자든)을 남기지 않았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파이디온’은 유아(baby)나 어린아이(toddler)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 단어는 기본 형태가 변할 때에만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본 형태인 ‘파이디온’에서 ‘파이다리온’(paidarion)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마태복음 11장 16–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할까?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paidarion)과 같도다. (마 11:16–17)

17절을 보면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매우 성숙한 사람처럼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아도 아니며 서너 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파이디온’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는 ‘파이디스카에’(paidiske)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베드로가 입구의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소녀(paidiske)가 들으려고 나왔다 가 (행 12:13)

여기 나오는 여자아이(damsel)도 결코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문으로 뛰어나가 대답할 정도로 성숙한 소녀(혹은 처녀)였습니다.

우리의 주제가 유아나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파이디온’의 성경적 용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짐을 실은 짐승과 함께 여행하며 먼 길을 오는 데는 약 2년 정도(만일 중국에서 왔다면)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사악한 왕 헤롯에게도 전해

졌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마 2:7)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에게 별이 2년 전에 처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헤롯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어린아이(paidion)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다시 말을 전해 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paidion)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위에 멈춰 서므로 (마 2:8-9)

위의 성경 구절에서 어린 주 예수님께서는 ‘파이디온’(paidion)이라 불립니다. 그분께서는 그때 두 살이 채 안 되었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였습니다.¹ 침례자 요한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지났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를 ‘파이디온’이라 칭 하셨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들이 아이(paidion)에게 할례를 행하려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 부르매 (눅 1:59)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는 ‘갓난아기’ (babe 혹은 baby)가 구유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눅 2:16).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이(paidion)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그 말을 널리 알리니 (눅 2:17)

예수님께서도 갓 태어난 아기를 ‘파이디온’이라 칭하셨습니다.

1. 이 사실은 동쪽의 지혜자들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담은 크리스마스 카드들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물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paidion)를 낳는 즉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라. (요 16:21)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가 석 달이 되기 전에 ‘파이디온’이라 불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는 그가 특이한 아이(paidion)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히 11:23)

이외에도 비슷한 성경 구절들이 더 있지만 저는 이 구절들만으로도 성경에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유아’나 ‘아주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결론짓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인 ‘파이디온’이 자라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때 성경은 그를 ‘아이[소년]’(paidarion)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린아이’가 ‘아이[소년/소녀]’로 변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도 매우 명확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에서 불신의 죄를 지은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주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한 주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네 앞에 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기에 들어가리니 그의 용기를 북돋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또한 탈취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것들과 그 날에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신 1:34-39)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를 알고 계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어른들은 모두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죽어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은 그 죄악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셨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살펴봅시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혐오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사 7:14-16)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선과 악의 차이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성숙한 상태로 자라나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선을 택하시고 악을 거부하실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선 그렇게 될 때까지 자라나셔야만 했습니다. 유아 시절을 보낸 아이라면 누구나 이 같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있던 시므온에게 그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이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 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눅 2:39-40)

갓난아기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셨습니다. 열두 살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께서는 선과 악을 완전히 알게 되셨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눅 2:41-52 참조).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를 지은 바가 없으시다.”(히 4:15; 베전 2:22)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지만,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나이까지 자라나셨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원리는 매우 확실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중 어느 특정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우 어릴 때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시 51:5)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 죄인이 됩니다.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는 즉시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 58:3)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사 53:6)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부인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

에게 죄짓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본질상 죄인이며, 따라서 자연히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말을 듣지 않는 작은 가지를 올바로 세워 주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계속해서 그들의 나쁜 버릇을 바로잡아 주려 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에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성경 말씀에 따르다면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물론 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죄인들, 즉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자신들이 행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しゃ 할 분의 모형이니라. (롬 5:12, 14)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① 아담의 범죄의 유형을 따라서
- ② 아담의 범죄의 유형을 따르지 않고서

만일 독자께서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죄를 처음으로 지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이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창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브가 아닌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man, 남자)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롬 5:12)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롬 5:17)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롬 5: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롬 5:14)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브가 아닌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이브가 먼저 잘못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먼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브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브가 먼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고후 11:3)

위에서 ‘속이다’로 번역된 단어는 ‘beguile’이며 웹스터 사전은 이 단어가 ‘현혹하다’, ‘마음을 훌리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정의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탄은 속임수를 써서 이브를 속이고 그녀의 마음을 훌렸습

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이브로 하여금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했고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딤전 2:14)

그러나 아담의 마음은 이처럼 혼혹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브가 범죄 가운데 있었으나 — 다시 말해 그녀가 처음으로 죄를 짓기는 했으나 —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브의 죄는 아담의 범죄의 유형을 따라 저질러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으로서 아담을 지적하시며 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성경에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롬 5:14)라고 기록되어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함으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브처럼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며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죽음이 그들 위에 군림합니다. 사실 죽음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브처럼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서 성숙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훌리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들의 이해의 정도가 완전히 성숙해져서 그들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짓게 될 때 비로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따라서 만일 어린아이들이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죽는다면 그들은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그들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 죽는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않는 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까?”

사실 그때가 어떤 특정한 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아이들 각자의 정신 기능 혹은 심성의 성숙 정도, 또한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영적인 빛을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 본 결과 저는 경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며 크리스천 가정에서 양육되고 좋은 주일 학교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이는 보통 만 6~7세 정도가 되면 자신에 대해 책임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한 많은 아이들을 만났던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악에 대한 확실한 지식’(신 1:39)을 가지고 있으며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앓’(사 7:16)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저는 매우 심성이 밝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섯 살만 되어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네다섯 살에 믿음 고백을 한 아이들의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고백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구원에 대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비록 아이가 구원을 이해하기에 아직 어려 보이더라도, 그 아이가 구원에 대해 올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막 10:14)

오직 성령님만이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결과는 성령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비록 아이들이 교회에 간다 해도 그들은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쓸데없는 종교적 교리나 자유분방한 사회복음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때는 앞서 말했던 범주의 아이들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이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나이는 아마도 여덟 살, 아홉 살 혹은 열 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단지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는 이교도 국가에 사는 어린아이들인 경우 그 나이는 열두 살 혹은 열세 살까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몇몇 독자들께서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는 한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이 없고 따라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전부 허사일 것입니다.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막 16:15)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합니다. 이교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롬 1:19–29)

따라서 더 많은 영적인 빛을 받게 되면 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이는 모두에게 —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요 1:9)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같이 인지 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

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악에 대한 확실한 지식’(신 1:39)을 가지게 되고 충분히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아는’(사 7:16) 성숙한 지경으로 그들의 마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하늘에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 확인해 봅시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paidion) 하나를 불러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마 18:1-2)

이미 앞에서 충분히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에서 ‘파이디온’은 아기나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자기에게로 직접 ‘부르신’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 아이가 두세 살 정도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조심스레 살펴보십시오.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린아이가 하늘의 왕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하늘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존경받느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시고,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걸맞은 답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죽으면 하늘에 갑니까?”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큅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라고 부르신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귀여운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

로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일단 하늘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질문에 침묵의 답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만으로도 저는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하늘에 간다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만일 우리 어른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어린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만일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나 이의 어린아이로 죽는다면 그들은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 이니라, 하시고 (마 19:13-14)

“그런 자들의 것”은 곧 소유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왕국은 현재 시점에서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이를 쉽게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내게 올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린아이들과 하늘의 왕국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로 자라나 회개가 필요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현재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분 자신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마 18:5)

“내 이름으로”(In My Name)는 곧 ‘소속’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막 9:4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이름으로”는 곧 소속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분께서 아이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어 봅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마 18:5)

그분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십시오.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마 10:40)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속에 감추어진 진리가 독자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그분의 피로 거듭나 하늘행 열차를 탄 어른들, 바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린아이들이 어린 그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들은 곧장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피로 씻김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처럼 하늘에서 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이 이 책을 읽을 수도 있으므로 저는 위에서 제가 보여 드렸던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독자들이여! 어린아이들은 언제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당신은 회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회심’이란 사실 군대에서 병사들의 훈련 시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병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서서 180° 회전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즉 ‘뒤로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회심입니다.

당신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입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하늘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결코 이 같은 변화를 ‘새로운 잎사귀’를 내는 일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는 ‘새로운 출생’(New Birth)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는 달리 이는 결코 침례(혹은 세례)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이상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결코 물 침례에 의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카톨릭교회 등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전통(견진 성사나 성찬, 그리고 기타 여러 성례전)에서나 발견될 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 봅시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막 7:7–9, 13)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심과 구원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사악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에 구원자로 임하시도록 요청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눅 13: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3)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 1:12)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9–10)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종교적 신조들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종교와 성경의 진리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점을 지목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마 18:3-4)

독자께서도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에게 무슨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들은 겸손합니다. 그들은 소위 지성(intelligence)이나 위엄(dignity), 자기의 의로움(self-righteousness)이나 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성품으로 인해 쉽게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당신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모두 내어놓고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오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오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오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막 9:43-48)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죄와 자아를 사랑함으로 지옥행을 고집하시렵니까?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당신의 종교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잘 압니다.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저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며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은 영원도록 구원받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성경대로 믿는 좋은 교회로 가서 당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뒤 저자(혹은 역자)에게 편지를 주신다면 저 역시 당신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과 제가 하늘에 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영원을 보낸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장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선 우리는 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그가 충분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시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을 아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악을 거부하고 선을 택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질상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죄인이므로 그 아이는 종종 악을 택하고 선을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만일 그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되며, 그 점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분한 빛을

주셨기에 그는 응당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그는 회심하여 구원받든지 혹은 영원히 지옥에서 지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책임을 질 나이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 하늘나라가 그분께 속해 있으므로 그 아이가 죽게 되면 곧장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버지니 데몽 브르통_오렌지 나무 숲의 엄마와 아이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A Way of Salvation Is Provided For All

유아들과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면 곧장 하늘로 간다는 사실을, 제가 2장에서 성경 말씀으로 분명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으려는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우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나름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이 영적 거인들은 자기들의 철학에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증명하는 구절로 요한복음 3장 3절을 인용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요 3:3)

이보다 참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닉고데모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나(요 3:4) 끝내는 말씀의 진리를 찾아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요 7:50-51; 19:38-39 참조). 저는 닉고

데모가 구원을 받아 지금 하늘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그 순간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출생’(New Birth)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하늘을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볼까 합니다(사실 어른이 되면서 이 같은 능력이 점차 둔화되지요).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여리고의 길 한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두 살 된 예를 들자면 — 어린아이가 그분의 팔에 안겨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두 살 난 어린아이를 보고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리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 버려라! 너 위선자예 먼저 잔 안에 있는 것을 씻어라! 그래야만 그 바깥도 깨끗해질 것이다. 어떻게 네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너 두 살짜리 아이야,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누군가 이 지점에 다다르면 스위치를 꺼 버릴지 모릅니다. 저는 메스꺼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뛰어난 상상력도 그 이상으로 필름을 돌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위에서 언급한 매우 경건한(?) 영적 거인들은 바로 이 장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유아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께서(제가 방금 묘사했던) 그 장면을 손수 연출하셨다는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앞에서 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understan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obey)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receive) 사람은 누구든지 그 순간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린아이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며 인정할 수 있을까요? 겨우 두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자신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의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침대에 누워 있는 갓난아이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미약한 젖먹이가 로마서 1장에 있는 정죄에 해당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롬 1:18-22)

제가 묻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알았으나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언제 그 아이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그 마음이 어둡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언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슬러 범죄함으로 이제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지옥에 넣으려는 신학적 천재들은 이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아기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인해 그들은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원죄라고요?”

“원죄(original sin)라는 말의 ‘original’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러한 용어가 나왔나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 원죄란 아기가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단지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무슨 까닭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모든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사악한 자의 사악함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겔 18:19–20)

죄에 대한 별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 사망(physical death)과 둘째 사망(second death), 즉 계시록에 나오는 불 호수(Lake of fire)를 포함합니다(계 20:14; 21:8).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겔 18:4)

죄의 삶은 사망이나 (롬 6:23)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5)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당합니다(롬 5:12, 14).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담의 죄로 인해 둘째 죽음,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지 결코 아담의 죄나 부모의 죄 혹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은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 3:18)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담의 죄나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이미 정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 3:18)

사람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는 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지옥행!”을 주장하는 무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이들이 육체적 죽음을 당한다면 그들은 둘째 사망, 즉 지옥 형벌의 저주도 당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께서는 분명 육체적 죽음이라는 저주 아래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요? 즉, 죽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롬 8:3)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나(히 4:15) 자기 위에 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빌 2:7). 그러기에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신 그분도 죄의 결

과들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때로 피곤함을 느끼셨고 주리고 목마를 때도 있었습니다. 또 육체의 고통을 아셨으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자신의 혼을 버리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진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에 또다시 “아니오!”라고 한다면 이는 두 배로 터무니없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그분은 실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기 위해 불 호수로 가셨던가요? 만일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신성모독입니다.

육체적 죽음의 저주 아래 태어났다고 해서 둘째 사망의 저주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다고 말했음을 보여 드렸습니다(롬 5:12). 이들은 영원토록 안전한데 그 이유는 이들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2장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 일부를 다시 한번 반복하려 합니다. 분명하게 못 박아 둘 사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행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로마서 5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롬 5:12, 14)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① 아담의 범죄의 유형을 따라서
- ② 아담의 범죄의 유형을 따르지 않고서

만일 독자께서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실제로 죄를 처음으로 지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이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창 3:6)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말씀 하실 때 이브가 아닌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man, 남자)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롬 5:12)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 (롬 5:17)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롬 5: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롬 5:14)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브가 아닌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이브가 먼저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녀가 먼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브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브가 먼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고후 11:3)

위에서 ‘속이다’로 번역된 단어는 ‘beguile’이며 웹스터는 이 단어가 ‘현혹하다’, ‘마음을 훌리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탄은 속임수를 써서 이브를 속이고 그녀의 마음을 훌렸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이브로 하여금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했고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딤전 2:14)

그러나 아담의 마음은 이처럼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브가 범죄 가운데 있었으나 — 다시 말해 그녀가 처음으로 죄를 짓기는 했으나 —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브의 죄는 아담의 범죄의 유형을 따라 저질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으로서 아담을 지적하시며 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로마서 5장 14절이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함으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브처럼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며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죽음이 그들 위에 군림합니다. 사실 죽음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브처럼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과 어린이들은 결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구원과 새로운 출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엡 2:8)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롬 10:17)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약 1:18)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벧전 1:23)

그러나 그것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그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롬 10:8-10, 13-14)

바로 위에 있는 성경 말씀에 따라 유아들과 어린아이들과 관련하여 제가 묻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시 119:130)

단순한(우둔한) 사람들에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지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람들은 아기들과는 다릅니다. 아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라지 못했는데도, 죽은 아이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다 지옥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롬 5:8)

온 우주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옥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길이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딤전 1:15)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3)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계 22:17)

이제 저는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려는 영적 거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이제 다시 한번 스위치를 켜서 상상의 필름을 돌려봅시다.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의 정글 속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교도들의 북소리가 들려옵니다. 앞이 흔히 내다보이는 곳에 다다르니 이교도 마술사가 이제 막 사람을 잡아 사탄에게 바치려는 끔찍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북소리에 맞추어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주위는 사악한 영들로 가득합니다. 이 마술사는 공공연히 마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마술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을까요?”

물론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술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술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교도소의 칙칙한 담벼락 가까이에 가 봅시다. 정문을 통과하자, 철커덕 문이 닫히고 순간 우리는 마치 몇 년형을 선고받고 들어온 죄수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간수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 감방을 지나 긴 복도 끝에 있는 견고한 쇠창살 문 앞에 다다릅니다. 머리 위로 다음과 같은 표지가 걸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 철통 경비 】

그 문을 통과하자 여러 개의 작은 방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쇠창살 같은 것은 없고 다만 단단한 쇠문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에는 작은 유리 구멍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봅시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잡히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는 소녀들을 자기 차로 유인해 한적한 곳에 있는 버려진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했고 그 뒤 죽기까지 잔인하게 고문을 가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 집의 지하실을 이들의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살인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을까요?”

당신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물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돌려 빈민굴로 가 봅시다. 저기 한 부랑자가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위태하다 싶더니 쓰러져 자기가 토해 낸 것 위로 텅굴고 맙니다.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불쌍한 인생 낙오자는 술독에 빠진 채 전 인생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경건치 못한 주정뱅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비참한 처지의 주정뱅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을까요?”

당신의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물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처지의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보니 저기 싸구려 모텔(여관)이 보입니다. 우리는 창문 너머

로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창녀입니다. 그녀는 야비한 남자들에 게 자기의 몸을 팔며 자기의 죄로 먹고살고 있습니다. 이 창녀는 하나님의 십계 명 중 일곱 번째 명령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을까요?”

당신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물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경건한 체하시는 영적 천재여! 분명히 당신은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이교도 마술사와 살인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그 하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와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순진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해 두시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멱칠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아무도’에 어린아이들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봅시다.

앞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의 구절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이후의 구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아흔아홉 마리를 남겨 두고 산들로 들어가 길 잃은 것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해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 18:11-14)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살펴봅시다. 먼저, 그분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즉, 그분은 길 잃은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뒤 그분은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이유를 들어가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십니다. 이 목자의 특성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1. 그는 길 잃은 양에 대해 크게 염려하며 그 양을 구출하는 일을 가장 큰 바람으로 여깁니다.
2. 그는 양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 두고 그 일에만 총력을 기울입니다.
3. 그는 양을 구했을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 잃은 영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제대로 파악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주제를 끝맺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 18:14)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그분은 죄 중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어린아이들도 본질상 죄인이지만 그분의 간절한 바람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2. 그분은 이 어린아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을 떠나 갈보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3. 많은 어린아이들이 선악을 구분하여 구원의 길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이

르기 전에 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자마자 하늘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하늘을 선택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선택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 18:14)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갓난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2장에서 성경을 살펴 가면서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모든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고전 15:22-23)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몸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육체적으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시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행 17:31)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든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단 12:2)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8-29)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며 둘째 부활은 ‘영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적어도 1,000년(혹은 1,007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마지막 때의 7년 환난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년 환난 이후에 예수님의 1,000년간의 메시아 통치가 이 땅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뜻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계 20:5-6)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순서에 따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리라 말해 줍니다(고전 15:2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한 보증으로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고전 15:23).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후로 1,000년이 지난 뒤 영별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기도 전에 죽은 어린아이들도 그분께서 오실 때에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혼은 현재 그분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몸은 무덤 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17)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살전 4:13)

그때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의 혼이 부활한 그들의 몸과 하나가 됩니다
(고전 15:52).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
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
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살전 4:14-15)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복된 첫째 부활에, 선악을 구별할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아이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고전 15:22-23)

이제 잠시 둘째 부활에 대해 살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
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
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
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
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
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계 20:11-15)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이 무서운 심판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일부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모두(every person)가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과연 어린아이들에게 ‘행위’라 할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따르면 이 심판을 위해 지옥이 깨끗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2 더하기 2는 4”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흰 왕좌 심판에 어린아이들이 없다면 지옥에도 어린아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리스도나 마귀나를 선택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모두 안전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속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롬 5:8-11, 18)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이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갑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므로, 너무나 어려서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그 선물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것이 됩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 1:29)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요일 2:2)

[우리가]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 2:9)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종류의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어려서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전지전능함 가운데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을 영원토록 안전히 지킬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 결코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어린아이들은 현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강력한 천사들이 그들을 하늘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아름다운 본향으로 말입니다.

시편 91편 11-12절을 보면 천사들이 자신의 손으로 어린아이들을 나릅니다. 늙어서 죽은 나사로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해 낙원으로 옮겨집니다(눅 16:22).

이와 관련하여 저는 우연찮게 참으로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초기 미국 개척 시절 네 살 난 어린 아들과 함께 단칸 오두막 집에서 살았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정쯤에 그는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인자하게도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마를 닦아 주며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침대 곁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불

이라고는 희미한 등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눈을 뜨고는 부엌 쪽을 향해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들이 나를 위해 왔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니?”

“저기 있는 두 천사들 말이에요.”

그녀는 그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천사들이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단다.”

“엄마 그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들이 어디 있단 말이니? 얘야.”

그는 너무나 약해져서 손을 들어 그들을 가리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부엌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 엄마에게는 그들이 안 보여요? 그들은 바로 찬장 옆에 서 있어요. 그들은 제가 자기들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 몇 번 기침을 하고 눈을 감고는 하늘로 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네 살짜리 아이가, 그것도 죽어 가는 아이가 꾸며냈다고 보십니까? 혹자는 말하겠지요. “그 아이는 허깨비를 보았을 뿐입니다.” 과연 그 아이가 허깨비를 봤을까요?



파울 바델_행복한 아이들



비성경적인 유아 세례

The Unbiblical Sin of Infant Baptism

몇 년 전에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 어린 여자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 부모의 간청으로 그곳에 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기가 세례받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엄숙한 모습의 한 남자가 어머니 품에서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긴 검은색 가운을 입고 있었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목에 천주교 사제가 입는 로먼 칼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아기를 안고 나서 물통에다 오른손을 담그고는 곧장 아기의 이마에다 물을 적시더니 비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뒤 그는 매우 근엄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너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노라.

바로 그때 저는 마음에 큰 고통을 느꼈고 당장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분노와 슬픔이 제 가슴속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사탄에 대해 분노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을 보고는 슬퍼했습니다.

그 아기는 그 남자가 자기에게 무어라고 말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아이는 성경에 있는 대로 물에 잠겨 침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리스어 사전을 보면 ‘침례’라는 단어의 어근인 ‘밥티조’(Baptizo)가 ‘물속에 넣는 것’ 혹은 ‘물에 잠그는 것’, ‘물에 매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이마에 물을 뿌리고 문지르는 것은 결코 성경이 명하는 침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롬 6:4)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골 2:12)

위에서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담가서 묻는 것만을 침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아기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성경 말씀 자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성경 어디에도 아기가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으며 그와 같은 일을 행해도 된다는 암시조차 없습니다.

이같이 유아 세례는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상충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노라.”라는 그의 선언은 참으로 심각한 신성모독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 사실상 그는 그 아기에게 구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세례로 그 여자아이의 원죄를 없어지게 했고 그 아이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그 아이의 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보다 더 가증하고 거짓된 것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분명히 보여 주십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 12:9)

세상 사람들의 지각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사탄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후 4:4)

역사를 통해 우리는 유아 세례라는 사악한 죄가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해 처음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테스탄트들의 종교 개혁 이후에도 많은 교회들(소위 기독교회라 자칭하는)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통을 버리지 못한 채 이같이 비성경적인 관행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이 새로 만든 루터교에 이 가증한 교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진영 내에서 그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57년도에 출간된 「루터교 보고서」(Lutheran Reports)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씨가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 안에 심겨진다. 중생은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교회,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은 모두 “아기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구속하신 무리의 일원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공회의 공동기도서를 보면, 사제는 ‘유아 세례’를 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아기를 위해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이 거룩한 세례를 통해 아기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사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유아 세례’ 후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이 아이가 거듭나게 된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므로 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기가 원죄(original sin) 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다른 죄들(sins)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갓난아이가 기지도, 걷지도 못하며,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더욱이 사악한 생각 같은 것은 할 수도 없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아이가 ‘죄들’(sins)을 가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황된 의식은 콥틱 교회의 유아 세례 예식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거기서는 사제가 그 아기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따라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종교 지도자들이 설마 잘못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유아 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 사람들은 혀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들은 지옥 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속았다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단 한 군데에도 유아 세례에 대한 예나 구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종교 지도자들은 유아 세례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환영하셨고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한 사람들을 책망하셨으며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다는 구절을 인용합니다(마 19:13-15; 막 10:13-16; 뉴 18:15-17).

그때에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 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 19:13-15)

「복음 전도자들의 일치에 관한 주석」(*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Vol. II, p.390)에서 요한 칼빈(John Calvin)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 새로워져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세례에 의해 영적 은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그들에게서 외적인 표적(즉, 유아 세례)을 없앤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칼빈 신학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이 신학은 성경 자체가 아닌 성경에 관한 철학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장로교의 지도자였던 에반더(H. J. Evander)는 「유아 세례」(*Infant Baptism*)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세례, 정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입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물 없이 하는 세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성경을 심히 왜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마태복음 19장 13–15절에 대해 또한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자신의 팔로 어린아이들을 감싸 안으심으로 자신이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심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분은 안아 주실 뿐만 아니라 암수함으로 축복도 해 주셨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그러한 식으로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데, 그 이유는 아담 이후의 전 인류가 죽음의 선과 아래 있으며 단 한 분 구원자에 의해 구출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작은 자로부터 가장 위대한 자에 이르기까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이 같은 구속의 은혜로부터 제외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절을 사용하여 침례교인들(Baptists)의 반대에 답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하다.

칼빈은 자신이 주장하던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안으며 기도하셨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이는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져 주신 사람들만이 죽어서 하늘에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팔로 어린아이들을 감싼 것과 유아 세례를 결부시켜 오직 세례받은 사람들만이 하늘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시각에서 성경을 보았던 침례교인들은 당연히 이러한 비성경적인 유아 세례의 관행을 반대했고, 칼빈으로서는 그들의 반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침례교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진리를 고수했습니다.

죄 많고 유한한 사람의 손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잃어버린 죄인들의 눈을 가려 그들에게 혓된 영생의 소망을 심어 주는 인간의 모든 고안물을 어떻게 그냥 보아 넘기겠습니까? 당

신이 참으로 성경대로 믿는다면 구원이 단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십시오. 또한 구원이 오직 순수하며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십시오. 또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선포하지 마십시오.

참된 성경 신자들은 — 그들이 침례교인으로 불리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 이제껏 성경대로 따르지 않는 카톨릭교도들이나 프로테스탄트들과 함께 명예를 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불경건한 세상에서 강철과 같은 척추와 끊는 물과 같은 피, 그리고 모래도 소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위를 가진 유일한 무리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한가히 앉아서 마귀가 유아 세례 등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유아 세례로 인해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갔습니다. 이는 잘못된 관행이요 큰 죄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요한 칼빈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요한 낙스(John Knox)는 스코틀랜드에 장로 교회를 세웠고, 이는 현재 스코틀랜드 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보관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자료의 48쪽을 보면 ‘세례에 관한 성경적 교리’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며 예수님께 인도된 어린아이들의 경우 특별한 방법으로 주어진다. 즉,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 안에 어떤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어린아이로서 예수님께 인도되어 그분과 함께 자신들의 삶을 새로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로서 예수님께 인도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는 바로 유아 세례를 가리킨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세례를 통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아 세례가 아이를 회심시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회심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옥에 가야만 하겠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아이들이 회심한 것처럼 너희도 회심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결코 “너희가 회심하여 내가 ‘물 없이 마른 세례’(Dry baptism)를 준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면하려면,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하며 그 구절을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을 통틀어 지칭하시면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혹은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어린아이로서 죽는다면 그는 곧장 하나님의 왕국으로 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것이나 침례를 주는 것은 결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든 침례든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영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장의 앞부분에서 저는 성공회 사제의 기도를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 아기를 위해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이 거룩한 세례를 통해 아이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사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사람은 뻔뻔스럽게도 자기가 유아 세례를 집행함으로써 그 아기의 죄들을 사면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행 10:43)

보시다시피 죄들의 사면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며 침례(세례)를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주어집니다. 침례나 세례는 결코 죄들을 사면할 수 없습니다. 아기들은 믿을 수 없으므로 결코 회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 책의 2장과 3장에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살펴보았듯이 아직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죄들의 사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회 사제의 기도에서 세례가 ‘영적 거듭남’을 가져온다는 그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모든 카톨릭교도들과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믿는 바입니다. 이처럼, 세례가 새로운 탄생을 가져온다는 말을 카톨릭 사제들과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의 입에서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거듭남’과 ‘새로운 탄생’은 같은 것인데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말에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무어라 말씀하십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요 1:12-13)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born again)만 합니다.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1. 다시 태어나려면(요 3:3, 7)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2. 다시 태어나려면(요 3:3, 7)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합니다(롬 10:9; 앱 3:17; 계 3:20). 그런데 유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 결코 다음의 것들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 a. 피로 – 즉, 사람의 혈통으로
- b. 육신의 뜻으로 – 자신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딛3:5; 앱2:8–9).
- c. 사람의 뜻으로 – 어떤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침례(세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면, 그 같은 거듭남은 사람의 손에 의해 사람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사람이 침례(세례)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침례(세례)가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에게 침례를 줄 사람이 없거나 누군가가 그에게 침례 주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누군가가 그에게 침례를 주면 그는 구원을 받겠지만, 그에게 침례 주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유아 세례입니다. 만일 목사나 사제가 어떤 이유로든 죽어 가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 주기를 거부한다면 그 불쌍한 아이는 사람의 뜻대로(?)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한마디만 더하지요. 구원은 사람의 뜻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님들께서 이 책을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비록 당신이 매우 진지했다 하더라도 참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안다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이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만약 아직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 책의 2장 후반부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당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곧장 아이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또한 그 아이들에게 당신이 잘못했음을 인

정하십시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함을 알리십시오. 그다음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옥으로 보낼 뻔했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고후 6:17-18)

당신이 독립적이며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남긴 발자국마다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역사를 통해 수많은 침례교인들이 성경대로 믿다가 카톨릭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침례교인들의 역사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대로 살며 탐험하지 않았기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문과 폭력을 당하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이끈 거짓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유아 세례’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지나간 시대의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재침례교인¹들이 행한 것처럼, 침례를 받을 때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온 헤를 부인하는 것이요 또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재침례교인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한 것은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됨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이다.

[비슬리(G. R. Beasley)의 「신약 성경의 세례」(Baptism in the New Testament), 1962, p.345]

1. 한국에서는 ‘재침례교인들’ (Ana-Baptists)을 ‘재세례파’라고 하는데,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도대체 누가 다시 세례를 받았단 말인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다.

과연 침례교인들이 복음을 왜곡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사실 침례교인들은 순수한 복음을 믿었고 그것을 지켜 온 사람들입니다.

한 유명한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가 인정한 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즉, 그는 재침례교인들이 처형당한 사건이 유아 세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효과가 없다고 말한 자들이 누구이던가? 침례교인들이 아닌가? 그들은 교회의 고백에 동의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유아 세례에 동의하지 않았다. 개혁자들(프로테스탄트들)은 이 같은 혼동을 너무나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처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가?

[홀러(H. Holer)의 「복음신학」(*Evangelische Theologie*), 1949, p.477]

성령님의 인도하에 옛적의 시편 기자는 당신이 어떤 그룹에 속해야만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시 119:63)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며 비기독교적이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는 마귀의 큰 속임수 가운데 하나이며 순진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사악한 것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에드문트 아들러_어린 체리 판매상



연자방아 맷돌

The Millstone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린아이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이 책의 중심 말씀인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하늘의 왕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간담이 서늘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마 18:6)

독자께서는 위의 구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구절 때문에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에 나오는 ‘작은 자’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언

급된 ‘새로 변화된 이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성경을 보면 갓 태어난 크리스천은 어린 아기로 여겨집니다(벧전 2:2). 물론 갓 태어난 크리스천에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그가 주님과 나누는 교제를 방해함으로써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구절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악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점은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연자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눅 17:1-2)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마 18:6)

연자방아 맷돌이란 바위를 깎아서 바퀴 형태로 만든 거대한 돌로서 주로 꼭식을 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무게가 자그마치 4톤(4,000kg)이나 되었으므로 대개 황소 두 마리가 그것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4톤이나 되는 연자방아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들에게 영생에 대한 그릇된 소망을 심어 주느니 차라리

의사하는 편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문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도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 내어 네께서 던지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오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네께서 던지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오니라.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 18:7-10)

만일 당신의 손이 하는 어떤 일로 인해 장차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혹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 손을 찍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서 구원받으십시오. 두 손을 가진 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몸뚱이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잘못 인도하여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지금 불구가 되어 의를 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어린아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발을 찍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서 구원받으십시오. 두 발을 가진 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발이 잘린 채 몸뚱이만 가지고 여생을 보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일 당신의 눈이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 어린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눈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서 구원받으십시오. 두 눈을 가진 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없이 평생을 살다 영원히 하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말이나 예화 혹은 교훈을 통해 어린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는 일은 곧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같이 두려운 경고를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 18:10)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 18:7)

지옥에 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당신이 본래 받을 진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여 당신을 따라 지옥에 가게 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라. (히 10:31)

만일 당신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 밑바닥에서 의사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일까요? 많이 있지만, 저는 다음의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유아 세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있으며, 장성한 후에야 자신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 자체가 은혜의 역사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줄 알고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아이들, 사춘기의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은 자신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늘에 간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카톨릭 사제들이나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은 지금 그들의 손, 즉 유아 세례를 집행하는 손을 잘라 버리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나을지

도 모릅니다. 장차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그들은 분명 “차라리 그때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다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라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들이 속히 성경으로 돌아와 진리를 알고 그대로 행하길 바랄 따름입니다.

2. 거짓 종교로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아이들을 종교적으로 양육하려는 마음을 가진 진지하고도 헌신적인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주선으로 그곳의 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교리문답, 견진 성사, 성만찬 등에 참여합니다. 독실한 카톨릭교도들은 자기 자녀들이 마리아를 부르며 묵주를 돌리고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독실한 프로테스탄트들은 자기 자녀들이 예배 형식에 따라 잘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단 종파에 속한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 역시 거짓 종교의 교리를 배우도록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어린아이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엄숙한 예배 형식에는 익숙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이 같은 종교 의식 속에 가두어 버리는 부모들은 참으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여 당신과 함께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처럼 진지하며 독실하나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부모들도 언젠가는 “차라리 그때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다는 것이 더 좋았을걸.” 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3. 사회 복음만을 가르치는 주일 학교 교사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주일 학교 교사들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혹은 “선을 행하라.” 등의 사탕발림 같은 사회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죄, 죽음, 지옥, 회개, 구원자, 십자가, 피, 그리고 거듭남 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악한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에게는 더욱더 뜨

거운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때에야 비로소 연자방아 맷돌을 원할 것입니다.

4.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가지 않는 부모들

자기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 도무지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일요일은 단지 낚시하고 보트 타고 정원을 가꾸고 야구를 하고 소풍을 가며, TV를 보고 신문이나 소설을 보는 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은 자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날, 그분의 집,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이 맡겨졌기에 그들에게는 아이들의 물질적 번영뿐만 아니라 영적인 번영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 부주의한 부모들은 스스로 본이 되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나 영원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언젠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지옥에 있게 될 때 그 부모들은 뒤늦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15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흰 왕좌 앞에서 심판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한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외칩니다.

“아빠! 아빠는 왜 제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제 영혼을 무시해 버렸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불 호수에 던져지기 직전에 그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아빠! 아빠는 제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보트 타는 법도 가르쳐

주셨지요. 사냥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며 노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제게 영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불경건한 아버지는 차라리 연자방아 맷돌을 달았으면 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어머니와 딸이 동시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외칩니다.

“엄마! 엄마는 제 영혼에 대해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저를 야외나 산, 공원, 해변 그리고 극장에 데리고 갔었지요. 또한 어떻게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담배를 피며 칵테일을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부주의하며 어리석은 그 어머니는 시간을 되돌려 차라리 그때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죽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5. 어린아이들을 부주의하게 다루는 목사들과 교사들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복음주의 교회에서조차도 종종 아이들은 값싼 상품처럼 취급됩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들은 자신들이 복음적인 교회에 다니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주님을 영접하고자 나아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부주의한 탓에,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경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주일 학교 교사, 그 외 교회의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늘 연자방아 맷돌을 유념한다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부주의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단정치 못한 삶을 사는 크리스천 부모들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부모들에 의해 어린아이들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에서 양육되지만 자기 부모들의 위선과 모순된 삶을 보게 될 때 아이는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일만 생기므로 결국 그는 실족하게 됩니다. 아빠는 크리스천이지만 언어 습관이 좋지 않고, 엄마도 크리스천이지만 늘 담배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므로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나쁜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지 말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극장에 가지?

그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빠는 음란 서적을 보지?

주일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요일만 되면 캠핑 가고 낚시하러 가지?

크리스천 부모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관성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갈 6:7)

담뱃불을 붙이던 당신의 손을 잘라 버리지 않은 데 대해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돌리게 했던 당신의 발을 잘라 버리지 않고, 더러운 잡지와 영화를 보기 좋아하던 당신의 눈을 빼 버리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옥 불 앞에서 당신은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뿌린 씨를 거두게 되며, 쓰디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았던가?

그 아이들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당신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당신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 눈물조차도 지옥의 열기 속에서 금세 말라 버립니다. 그제야 당신은 연자방아 맷돌을 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물론 당신은 하늘에 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위선적 행동과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도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 18:7)

7. 산타클로스와 부활절 달걀이나 토끼를 가르치는 부모들

어떤 독자께서는 이 주제를 보고 매우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릅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 말을 뒤집어엎어 버리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만일 당신이 자녀들에게 산타클로스나 부활절 달걀을 믿도록 가르친다면 당신은 그들에 대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 중대한 죄

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산타클로스를 살펴봅시다. 도대체 당신은 산타클로스에 대해 어떻게 가르침니까? 저는 이것이 다음의 노래 하나로 잘 요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가 마을에 오시네’라는 노래 가사를 살펴봅시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아인지 나쁜 아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자, 왜 아이들이 토라지거나 울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산타클로스가 사슴 썰매를 타고 하늘에서 기적처럼 나타나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12월이 되면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이 같은 산타클로스 신드롬에는 몇 가지 사악하고 가증한 죄악이 들어 있습니다.

a. 먼저 이는 거짓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네가 아느니라, 하시니 (막 10:19)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가르치는 일은 거짓 증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짓말 뒤에 누가 숨어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 8:44)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사악한 마귀의 일입니다. 물론 많은 부모들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고, 제가 매우 편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이들로부터 어린 시절의 즐거움과 낭만을 빼앗아 가려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세 자녀들은 산타클로스를 모른 채 자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당신이 제 아이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성탄절이 일 년 중 가장 흥미진진한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직과 진리 안에서라면 분명히 성탄절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점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우며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임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고후 9:15).

“하지만…,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이 뭐 그리 나쁜 겁니까?”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제게 그렇게 말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직도 제가 너무나 편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너무나 편협하신 분이시므로 어떤 거짓말도(그것이 새빨갛든 시커멓든 녹색이든 갈색이든 회색이든 흰색이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 21:27)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b. 이는 우상 숭배입니다.

시내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출 20:3)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거나 그분과 동등한 수준에 놓이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네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신 6:14-15)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神)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산타클로스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에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에 대해 가르칠 때 결코 그를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지 한 번 살펴봅시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아인지 나쁜 아인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이는 바로 산타클로스의 신성(神性)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그를 전지하고 무소부재한 존재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살피시느니라. (잠 15:3)

주의 눈은 온 땅 전역을 이리저리 달리며 그분을 향해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대하 16:9)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히 4:13)

당신의 자녀들에게 산타클로스를 믿도록 가르치는 일은 사악하며 공개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살아 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살전 1:9).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요일 5:21)

그러므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고전 10:14)

c. 이는 신성모독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어린아이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성탄절에 이 선물은 누가 주었니?”

그러면 그 아이는 “산타클로스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약 1:16–17)

따라서 위의 성경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을 범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약 1:27)

산타클로스는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약 4:4)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사 14:14)고 외쳤던 그날부터 루시퍼, 즉 사탄 마귀가 가장 강렬히 추구해 온 것은 경배를 받는 일이었습니다(마 4:9).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일 5:20)로부터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 다 할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게 할 때마다 사탄 자신은 간접적으로 경배를 받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고후 4:4). 신이란 숭배받는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산타클로스로 돌리게 하는 일은 그들이 간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크리스마스는 누구에 관한 것인가?”

만일 아이가 “산타클로스요.”라고 대답한다면, 이는 신성모독입니다! 소위 크리스천 가정이라 불리는 집안에서 자란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가 “산타클로스하고 예수님이고.”라고 대답한다 해도 여전히 신성모독입니다. 그 대답이 100%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악한 것이며 신성모독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마귀에 의해 이루어진 신성모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말해 주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눅 19:10)

왜 말구유가 등장합니까?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동방의 지혜자들을 인도하던 별이 마구간 위에 멈추어 섰습니까?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천사들이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되어 구원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탄절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들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 (딤전 1:15)

부글부글 끓는 유황,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길, 검고 메스꺼운 연기로 가득한 지옥에서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솜이 들어 있는 빨간색 옷을 입은 채 사슴을 타고 나타나는 똥뚱이 산타클로스가 도대체 속죄의 피, 십자가, 구원, 하늘 등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산타클로스는 마귀의 도구로서 우리 주님의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가로채는 존재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산타(Santa)라는 단어에서 중간에 있는 ‘n’을 빼어 맨 뒤에 갖다 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¹

1. 산타클로스의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Nicholas)이며 간단히 닉(Nick)이라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한사전으로 가서 ‘Nick’을 찾아보십시오. 그 단어 설명에는 ‘Old Nick’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 ‘Old Nick’이 바로 마귀, 악마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Satan)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 책을 덮어 버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십시오. 그들의 인생 여정에 걸림돌을 던져 놓으십시오. 계속해서 신성모독적인 우상 숭배를 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께서 산타클로스 거짓말에 대해 물으실 때 당신은 무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부활절 토끼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대체 축 늘어진 귀와 뾰족한 이빨을 가진 멍청한 토끼(색칠한 달걀을 넣는다지요)가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답 :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위축시키기 위해 만든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제게 화를 낼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당신이 주 하나님과 대면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경고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내용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이며 거짓말은 죄입니다. 죄는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는 거침돌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연자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눅 17:2)

제 말에 동의하신 분만 다음 장으로 가십시오.



프레데릭 모건_링어링어로지스 오!



유산된 아이들

Unborn Children

지난 몇 년간 많은 어머니들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제게 물어 왔습니다.

유산된 제 아이를 하늘에서 보게 될까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태 속에 있던 태아가 과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물에 지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유산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태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도 사람의 혼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선 신학자들, 의사들, 그리고 과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단지 한 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피조물들과 논쟁을 하며 시간을 소비합니까?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논쟁의 여지없이 명백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

훈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뱉 것이 드러나매 (마 1:18)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태아’(fetus)라고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을 그분께서는 ‘아이’(child)라고 부르십니다.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더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눅 1:39-41)

여기에서 아기(babe)라 번역된 그리스어는 ‘브레포스’(brephos)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 16절 등에서 이 단어는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이 단어가 ‘어린아이들’(infants)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기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으므로 (눅 18:15)

‘브레포스’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아이로 번역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from a child) 네가 거룩한 성경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딤후 3:15)

위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든, 갓난아이든,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든 간에 그것을 표현할 때는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이나 물건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눅 1:15).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복음서를 기술한 사도들 중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마 의사인 누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의 손을 빌려 아이가 혼을 갖게 되는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그 아이가 혼을 갖게 될까요? 아닙니다. 임태되자마자 그 아이는 혼을 갖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와 첫 숨을 쉴 때까지 그들은 살아 있는 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창 2:7)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Adam was not born.). 그는 창조되었습니다(He was created.). 따라서 이 구절은 그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역사 속을 스쳐간 사람들 중에 배꼽이 없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뿐입니다. 아담은 창조되었고 이브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 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셨습니다. 임태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작은 생명은 살아 있는 완전한 혼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그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서 죽게 되면 그는 곧장 하늘로 가며 만일 그의 부모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늘에서 그들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육은 이 사실을 적어 놓았습니다. 땅에서 자신에게 미친 재앙으로 인해 애통하면서 그는 자신이 어머니 태 속에서 죽었더라면 하고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에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 3:11)

만일 그가 태 속에서 죽을 수 있었다면 그전에 태 속에서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살아 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살아 있다는 것은 그가 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죽음은 그의 혼이 몸으로부터 떠나는 것임을(아래 구절을 참조) 미루어 볼 때 이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가 태 속에 있을 때에도 그는 분명 ‘살아 있는 혼’(living soul)이었습니다.

그들이 벤엘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랏까지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을 때에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창 35:16–18)

라헬의 혼이 그녀의 몸을 떠났을 때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육이 자기 어머니 태 속에서 죽었더라면 태 속에 있는 육은 라헬과 마찬가지로 혼입니다. 육이 고통 중에 한 말은, 비록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아홉 달 동안 자랐다 할지라도 태어나는 순간에 죽어 버렸으면 이러한 고통은 없었을 터인데 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에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 3:11)

만일 이 구절을 그대로 믿는다면 육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혼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경우를 한탄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릎들이 먼저 가서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젖가슴이 먼저 가서 내가

빨게 하였던가?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누워 평온히 지내고 잠들어 이로써 안식하였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 황폐한 처소를 세운 땅의 왕들과 조언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혹은 금을 가진 통치자들 곧 은으로 자기 집을 채운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은 남모르게 유산된 자같이 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겠고 전혀 빛을 보지 못한 어린 아기들 같았으리라. 거기서는 사악한 자들이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들이 안식을 얻으며 (욥 3:12-17)

욥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그곳’에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유산되어 죽었더라면, 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혼이 ‘그곳’에 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곳은 스올(Sheol,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의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모두 스올에 갔습니다. 스올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의로운 자들이 가는 낙원(파라다이스)이 있고 불의한 자들이 들어가는 뜨거운 불꽃 부분이 있습니다(눅 16:19-31; 23:43). 만일 욥이 유산되어 죽었더라면 그는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더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햇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창 25:8)

누가복음 16장 19-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안위와 기쁨의 장소에 있었으며 의식이 있어 모든 것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은 막벨라 굴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낙원에서 새로운 몸(new one)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완성된 몸을 갖지 못한 채 죽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새롭고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2-17절을 보면, 당신은 어머니의 태에서 죽은 아이가 왕들과 조언자들 그리고 통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8-19절은 죄수들과 종들과 그리고 큰 자와 작은 자들이 다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과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다 곧바로 하늘로 갑니다(마 27:52-53; 행 7:54-60; 앱 4:8-10; 고후 12:2-4 참조). 자, 이제 다시 한번 경건한 육이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살펴봅시다.

그런즉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까? 내가 숨을 거두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 10:18)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할 때에도(태에 있으므로) 자신이 혼을 가지고 있었다고 육은 말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원한 혼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자신의 어머니의 태에서 자신의 몸이 형성된 것에 대해 무어라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시 139:13)

창세기 2장 7절에 따라 이 구절에서 언급된 ‘나’(me)는 다윗의 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진짜 사람은 ‘몸’(body)이 아니고 ‘혼’(soul)입니다. 몸은 단지 혼이 들어가 거주하는 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으로 덮인 ‘나’(me)는 바로 다윗의 혼입니다. 만일 다윗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죽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스울에서 몸을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므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시 139:14-16)

얼마나 명백합니까? 잉태되자마자 다윗의 혼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에 그는 살아 있는 혼이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임신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의 혼을 몸으로 덮어 주셨습니다(즉, 몸이 자라남).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성령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어 이 구절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과학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그 말이 맞음을 증명합니다. 1968년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방금 잉태된 아이는 완전한 존재로서 단지 몸이 자라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조직 세포 핵 안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그 세포의 염색체 중 23개는 아버지에게서 오며 나머지 23개는 어머니에게서 온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세포의 1/2씩을 제공하는 것이다. 잉태 시에 이들이 결합하여 46개의 염색체를 갖는 하나의 새로운 세포를 형성한다. 이러한 수정란은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의 일부가 아니며 새로운 인간의 첫 번째 세포이다.

아버지가 염색체의 반을 그리고 어머니가 나머지 반을 제공합니다. 잉태되면 새로운 인격체가 형성됩니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새로운 세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아기는 아버지의 몸과 어머니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신의 피와 세포와 근육과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탯줄을 통해 그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몸 안에서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어머니는 그러합니다.

그 아기를 혼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그 아기의 폐 속에 있는 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생명’(life)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혼’(soul)으로도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혼이 피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막 잉태된 아기는 자신의 피 안에 이미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는 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유산하면 그 아이는 곧장 하늘로 간다.”

이는 낙태된 아이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면, 하

나님께서 “너는 죽이지 말라.”(Thou shalt not kill.)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면 “너는 살인하지 말라.”(Thou shalt not murder.)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murder’라는 단어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 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창 9:6)

그러므로 잡초를 죽이는 것(kill)은 살인(murder)이 아닙니다. 식물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물론 벌레를 죽이는 것도, 동물을 죽이는 것도 살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murder)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경우에만 피에 대해 피를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 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창 9:6)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출애굽기 20장)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다음 장에서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으나 어떤 피해도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며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그러나 어떤 피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출 21:22-25)

출산이 가까운 산모가 상처를 받으면 종종 미숙아가 태어납니다. 경우에 따라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읽은 성경 구절

을 보면, 어떤 피해(또는 재해)가 뒤따르지 않으면 피해를 가한 사람은 화가 난 그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받는 피해(형벌)를 감수해야 하며 재판관이 결정하는 대로 재정적인 벌금도 내야 합니다(산모가 다쳤기 때문에). 다시 말해 미숙아가 태어났더라도 어머니와 아이가 살아 있다면, 피해를 가한 사람은 단지 육체적 및 재정적 벌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어떤 피해(재해)가 뒤따른다면(즉, 유산이 되어 아기나 엄마가 죽게 된다면) 피해를 가한 사람은 생명에 대하여 생명을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 아기의 생명은 어머니의 생명만큼이나, 아니 피해를 가한 사람의 생명만큼이나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오늘날 큰 논쟁거리인 낙태에 관한 의문점들이 모두 해소되고 맙니다. 낙태가 살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행할 때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낙태는 살인입니다.

성경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는 잉태되는 순간에 새로운 혼이 존재함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그 작은 태아는 완전하며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아이가 태 속에서 죽게 된다면 그 아이는 곧장 하늘로 가게 됩니다.



엘리노어 벨_ 할머니의 성경



아이들은 천국에서도 아이들일까요?

Will They Remain As Little Children?

부모님들이 제게 많이 묻는 또 하나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하늘에서 그대로 어린아이로 남아 있나요?

저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주실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어려서 죽은 아이는 하늘에서 그대로 아이로 남아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몇몇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마태복음 18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마 18:1-2)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큅니까?”라는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윗자리에 앉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학자나 신자들 간에는 ‘하늘의 왕국’(the Kingdom of Heaven)과 ‘하나님의 왕국’(the Kingdom of God)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두 왕국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세우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동일하게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독자께서 사복음서 안에 있는 이 두 용어를 살펴본다면 주 예수님께서 이 용어들을 바꿔가며 사용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늘, 즉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살펴봅시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 이까? 하매 (마 18:1)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자신에게 부르시고 군중들 가운데에 그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독자께서는 아이들이 하늘에서도 여전히 아이들로 남아 있는지 궁금해하십니까? 누가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있습니까? 3~4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마 18:3~4)

만일 주님께서 회심하여 구원받은 겸손한 사람이 하늘에서 위대하다고 말씀 하시려 했다면, 군중들 앞에 그러한 사람 하나를 데려다 세워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그림을 그리실 때에는 모든 선 하나님과 함께 정확하며 명백합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시며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명백한 진리 세 가지를 보여 주십니다.

1. 어려서 죽은 아이는 하늘에 간다.
2. 나이가 든 아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어른들은 반드시 회심하여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에 간다.
3. 어린아이는 하늘에서도 어린아이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속이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속이실 분이 아님을 확신하기에 저는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하늘에서도 아이들로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도 점점 자라 성숙하게 될까요?

물론 이러한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아이들은 영원토록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답을 주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며 하늘에서는 누구나 서른세 살 된 사람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이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

문입니다(요일 3:2). 그러나 저는 이 같은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인격과 성품에서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이 결코 우리가 그분의 신체적 모습(키, 체중, 못 자국, 창 자국 등)과 똑같게 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늘에는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사 55:8-9)

우리의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 가야 하며, 현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기심을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를 명백하게 해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누구도 늙거나 주름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고든 그 몸은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을 닮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또 네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하나님께

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고전 15:35-38)

당신이 땅에 밀알 하나를 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추수 때 당신은 땅에 묻힌 그 밀알이 아니라 그 밀알과 비슷한 다른 밀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가 땅에서 관 안에 어린아이를 넣어 그 몸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던 그 몸과 비슷한 몸, 즉 자신이 기뻐하시는 몸을 주심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고전 15:49)

자, 이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다윗 왕과 그의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 간통한 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나단에 의해 직접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해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야의 아내
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
서 치시매 아이가 심히 앓으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며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의 집 장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더라. 일곱째 날에



다윗의 어린 아들이 죽다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께 고하기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께 말하여도 그분께서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셨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그분께 고하면 그분께서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시겠느냐?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자기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고는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러므로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죽었나이다, 하매 이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뒤 주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오니라. 그가 요구하매 그들이 그의 앞에 빵을 차려 놓으니 그가 먹으므로 이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는 왕께서 아이를 위해 급식하고 우셨으나 아이가 죽은 뒤에는 왕께서 일어나 빵을 드시니 왕께서 행하신 이것이 무슨 일 아니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급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 주실지 누가 알 수 있으리오?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급식 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심하 12:13-23)

다윗 왕의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죽음의 문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그 아들은 아기겠습니까? 아니면 어른이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아들은 아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아기였으므로, 하늘에서도 아기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어린아이로 있는지 혹은 젊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많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나, 하늘 아버지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위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를 잘 요약해 줍니다. 다윗은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히 하늘(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지 일곱

째 날에 죽은 자기 아들에 대해 무어라 말합니까?

나는 그에게 갈 것이다.

다시 말해 다윗은 불쌍하게 죽은 자기 아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죽은 그의 아들이 다윗이 갈 곳, 즉 하늘(천국)에 갔음을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없는 하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과연 당신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화사함이 없는 영광의 황금 길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만일 무릎 위에서 재롱을 피우는 어린아이들이 없다면 그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귀중한 존재가 없는 곳이 아닐까요? 물론 저는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장에서 살펴본 성경 말씀과 제 상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저는 하늘에서 어린아이는 영원히 어린아이로 있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제 말만이 옳다는 주장이 아님을 독자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책을 끝내려는 시점에서 저는 성령님의 감동을 힘입어,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실례를 보여 드리며 초청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마비성 질병에 걸린 태어난 지 18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뉴욕 시에 있는 전염병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규정상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6주가 흘러갔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그 부모에게 전해졌습니다. 매우 무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슬픔에 찬 부모들은 멀리서 자신의 어린아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장례식 날에도 관 뚜껑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¹

1. 미국에서는 ‘Viewing service’를 통해 장례식 전에 관 뚜껑을 열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을 보게 함.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함께 이 짚은 부부는 작은 관이 땅에 묻히자 서로 부둥켜안고 몹시 울었습니다.

그 뒤 2주일이 지났을 때 뉴욕의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병원으로 곧장 와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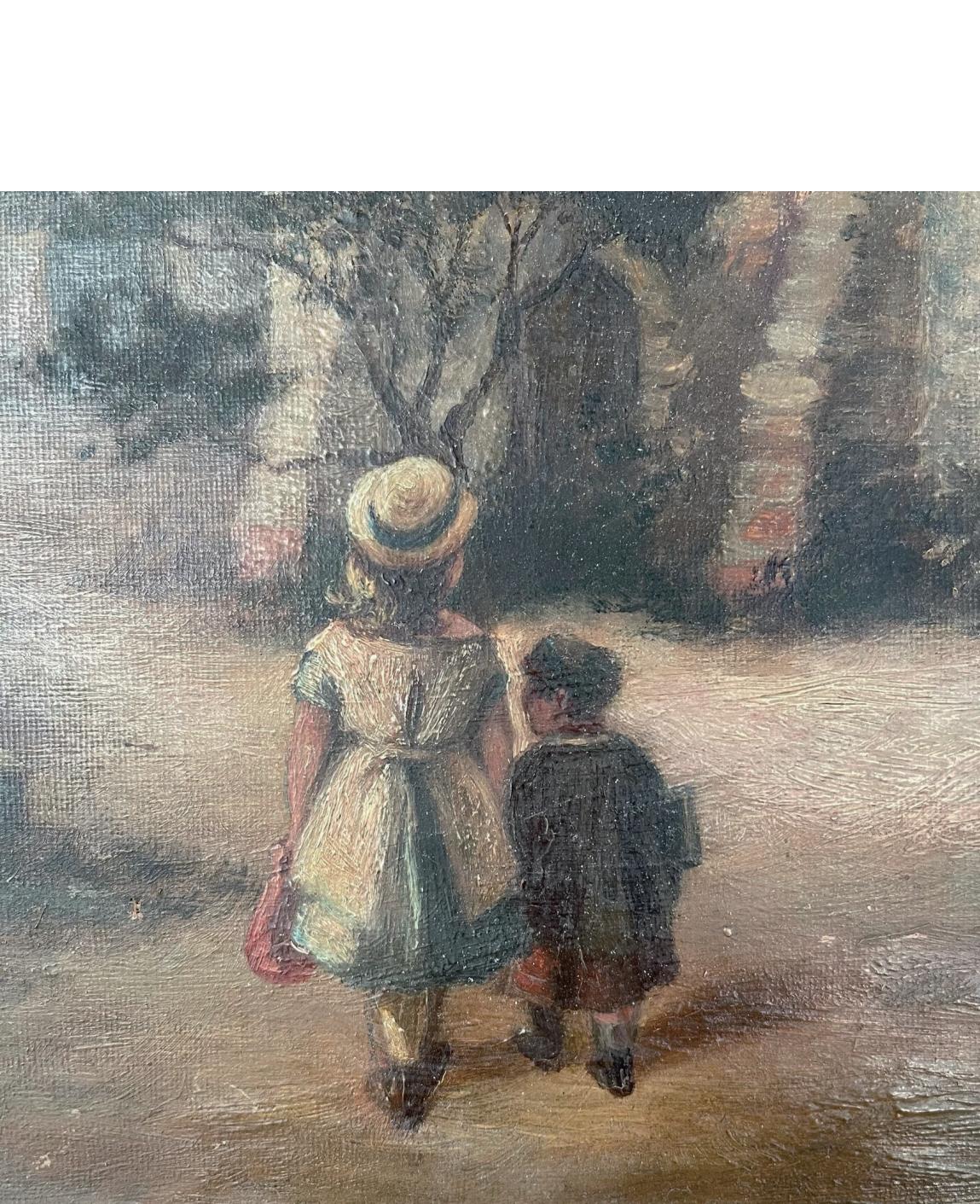
그로부터 한 시간도 못 되어 아무 영문도 모르는 어머니는 병원 관계자의 인도로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몇 분 후 간호사가 부부의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이는 건강하고 병이 다 나아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죽은 아이의 신원이 잘못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 아이가 너무나 닮았고 어떤 경위에서인지 그들의 이름표가 뒤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죽자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건강해진 아이가 엄마의 목을 꼭 감고 집에 들어오자 참으로 큰 기쁨이 그 가정에 넘쳤습니다. 「뉴욕 타임스」지는 이 기사를 다음과 같은 제목하에 실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알았던 아이를 되찾다!

당신은 이 어머니의 기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에 백만 배를 곱한다 해도 하늘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만나 영원토록 함께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독자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지금 그분을 영접하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 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작자미상_교회로 걸어가는 아이들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UR, WHICH IS CHRIST THE LORD.

LUKE 2:11





부록 1

크리스마스에 대한 바른 이해

본문에서 저자는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 그리고 사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르는 축제입니다. 성도들이 이날을 통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살펴보면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 부록에서는 먼저 「두 개의 바빌론」(Two Babylons, 알렉산더 히슬롭) 등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과연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실제적인 조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로 달력에 지정된 날이다. 그러나 이날이 정말 그분께서 탄생하신 날인가? 이때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관습들은 기독교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독교와 이교주의 또 다른 혼합물인가?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혼합물임을 알 수 있다. 이 단어에 ‘그리스도’(Christ)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미사’(Mass)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미사 속에 포함된 모든 정교한 의식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화체설 의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이것과 복음서의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그분의 생애와 사역은 이와 같은 의식들처럼 복잡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고후 11:3)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교주의가 미사와 같은 여러 의식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크리스마스’(Christ-Mass)라는 단어는 스스로 모순된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고 있었는데”(눅 2:8).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한겨울에 들에서 지내지 않았다! 클락(Adam Clarke)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목자들이 아직 자기 양 떼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10월이 시작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양 떼도 들에 있지 않은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타당성이 높은 주장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12월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주장은 버려야 한다.¹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명확하게 말해 주지 않지만, 그분께서 가을에 태어나셨음을 시사하는 구절들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봄에,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안다(요 18:39). 그분의 공생애 사역 기간이 3년 반임을 고려하면 그분께서 가을에 사역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그분의 나이는 약 30세였는데(눅 3:23), 이 나이는 구약 시대에 남자가 공적인 사역자가 되는 나이였다(민 4:3 참조). 만일 그분께서 그 가을

1. 클락, 「클락의 주석」, 제5권, p. 370.

에 30세가 되었다면 30년 전에 그분께서 태어나신 때도 가을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요셉과 마리아는 조세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눅 2:1-5). 한겨울에 조세 등록을 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한 해 중 조세 등록하기에 더 논리적인 계절은 수확이 끝난 가을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장막절을 지키던 때였을 것이며, 이는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간 이유도 설명된다(눅 2:41 참조). 또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즉 베들레헴의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사실도 뒷받침한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는 평상시에 12만 명의 거주민이 있었지만, 명절 기간에는 2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종종 모여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거대한 무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을 포함한 그 주변 도시들을 채우고도 남았다. 만일 마리아와 요셉의 여행이 명절에 참석하고, 또 조세 등록하기 위해서 였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해 가을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므로, 그분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를 아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했다(고전 11:26). 사실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어떤 날을 준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초기 축제일 가운데 들지 않았다.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은 축제일의 목록에 크리스마스를 넣지 않았다.²

후에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가 탄생한 정확한 날짜에 대해 이견이 많았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하여 지키기 시작한 때는 4세기 후반이었다.³ 그렇지만 「카톨릭 백과사전」은 5세기에 이르러서야 카톨릭교회가 12월 25일을 — 비록 이날이 태양신의 이름 중 하나인 솔(Sol)의 탄생을 기념한 고

2. 「카톨릭 백과사전」 제3권, p. 724, ‘크리스마스’ 항목.

3. 동일 문서, p. 725.

대 로마의 축제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했다고 말한다.⁴

한편 프레이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와 그리스 세계에서 12월 25일을 휴일로 기념하게 만든 가장 큰 이교도들의 종파는 이교주의의 태양신 숭배, 즉 미트라교였다. 그들은 이 겨울 축제를 ‘태양의 탄생’이라고 불렀다.⁵

로마 카톨릭교회가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하는 일에 이 이교도들의 축제가 관련이 있을까? 「카톨릭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유명한 ‘나탈리스 인빅티’, 즉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탄생을 축하하는 태양 축제가 12월 25일에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한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⁶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 관습들이 기독교화되었을 때에 혼돈이 발생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양신인 솔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터틀리안은 솔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와 솔로 동일시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발표했다. 교황 레오 1세는 사도들의 대성당 현관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해 숭배를 드리던 태양신 숭배자들 — 그때까지 남아 있던 자들 — 을 매우 엄하게 책망했다.⁷

겨울 축제는 고대에 매우 유행했던 관습이다. “이교도들의 로마와 그리스에서, 야만족인 튜튼 족들의 시대, 고대 이집트 문명 시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던 초기 시대에 동지는 기쁨과 축제의 기간이었다.”⁸

이 계절이 널리 유행했으므로 로마 카톨릭교회는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수용했다.

4. 「아메리카 백과사전」(*The Encyclopedia Americana*), 제6권, p. 623.

5. 프레이저, 「황금가지」, p. 471.

6. 「카톨릭 백과사전」의 글에서.

7. 동일 문서.

8. 월쉬(Walsh), 「인기 있는 관습들의 진귀함」(*Curiosities of Popular Customs*), p. 242.

현재의 크리스마스 관습들 가운데 몇몇은 로마의 농신제(12월 17일경에 행함)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어느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관련된 많은 것들 — 휴일, 선물 교환,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대함을 보이는 것 등 — 은 이교주의의 잔존물인 로마의 겨울 축제, 즉 농신제의 유물이다.”⁹

터툴리안도 선물을 교환하는 행위가 농신제의 한 부분이었다고 언급했다. 물론 우리는 선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단순한 관습 때문에 준수하게 된 기념일에도 그렇게 했다(예 9:22). 그러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과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지혜자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처럼 더 이상 ‘구유에 누워 있지 않았으며’ 집에 계셨다(마 2:9–11). 이들의 방문은 그분의 탄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으며,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크리스마스트리는 비록 거룩한 나무들에 대한 사상이 매우 오래되긴 했지만, 최근 몇 세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바빌론 우화는 죽어 버린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상록수가 솟아났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루터기는 죽은 니므롯을 상징하고 상록수는 니므롯이 담무스 안에서 새로 태어났음을 상징한다! 드루이드교도들은 상수리나무를 거룩히 여겼으며 이집트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로마 사람들은 농신제 동안 붉은 열매들로 장식한 전나무를 거룩하게 생각했다!¹⁰

사람들은 스칸디나비아의 신 오딘이 크리스마스 절기(yuletide)에 그의 거룩한 전나무를 방문



오딘

9. 베일리, 「로마의 유산」.

10. 활쉬의 글에서.

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고 믿었다.¹¹

성경에서도 최소한 10번 정도 푸른 나무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왕상 14:23 등). 모든 나무가 일 년 중 어느 시기에는 푸르기 때문에, 성경이 ‘푸른 나무’라고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항상 푸른 나무, 즉 상록수를 가리키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보면,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무를 장식하는 관습과 예레미야 대언자의 진술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장인의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뜻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을 못 하며 걸어 다닐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악을 행할 수 있고 또한 그것들 안에는 선을 행함이 없으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렘 10:3–5)

위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장인’이란 단순히 나무를 베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사 40:19–20; 호 8:4–6 참조). 도끼 역시 여기에서는 특별히 새기는 도구를 말한다. 예레미야의 진술을 인용한다고 해서, 교회나 개정에 크리스마스트리를 두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상으로 숭배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러한 관습은 어떻게 혼합물이 생겨났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실례가 된다.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또한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마스 관습이 기독교 이전의 이교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하는 식사를 거절해야만 하는가? 이로 인해 크리스마스 반대 운동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옳든 그르든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우리의 달력에 휴일로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

11. 울린, 「축제, 거룩한 날들 그리고 성인의 날들」, p. 222.

을 고려해 볼 때, 크리스마스를 폐지하기 위한 반대 운동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가져다준 좋은 효과가 더 컸음이 명백하다. 무신론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는 자기가 세력을 장악한 국가들에서 크리스마스를 폐지시켰다. 무신론 주의를 표방하는 기관들은 자기들이 종교적 표현은 모두 반대해 왔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활동들도 금지시키기 위한 소송들을 제기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참여를 막기 위해 그 기간 동안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의도치 않게 무신론주의자와 동일한 입장에 서게 된다. 크리스마스를 지나치게 반대하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불필요한 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오해와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서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극단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후 6세기에 로마 카톨릭교회는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선교사들을 북유럽으로 파송했다. 그들은 6월 24일이 이교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임을 발견하고, 이날을 기독교화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미 이때는 12월 25일이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받아들여졌다. 6월 24일은 12월 25일보다 대략 6개월 앞서 있으므로, 이날을 침례자 요한의 탄생일로 정한 것이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다(눅 1:26, 36). 그래서 6월 24일은 교황력에 ‘성 요한의 날’로 잘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기독교 전래 이전에 드루이드교도들이 6월 24일에 바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타오르는 불꽃으로 경축했다. 헤로도토스, 윌킨슨, 레이야드 등 여러 역사가들은 각국에서 행해진 기념 축제의 불에 대해 언급한다. 6월 24일이 성 요한의 날로 지정되자, 그 거룩한 불 역시 수용되어 ‘성 요한의 불’이 되었다! 이에 대해 「카톨릭 백과사전」이 증언하고 있다.¹²

한편 과거의 한 저술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일랜드에서 성 요한의 불 속을 달려가고 뛰어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불탄 흔적 없이 통과한 것을 자랑하며, 자신이 그 의식을 통해 특별히 축복받았다고 여겼다.”¹³ 이러

12. 「카톨릭 백과사전」, 제8권, p. 491, ‘침례자 요한’ 항목

13. 「톨란드의 드루이드교도들」(Toland's Durids), p. 107 (허슬롭, p. 746으로부터 재인용함)

한 의식은 침례자 요한이 아니라 몰렉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월 24일은 고대 물고기 신인 오안네스에게 신성한 날로 여겨졌는데, 니므롯이 이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¹⁴ 파우셋은 니므롯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오안네스, 즉 물고기 신은 바빌론 문명을 세운 존재로, 홍해에서 나타났다.”¹⁵ 로마 교회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 요한은 ‘요안네스’(Joannes)라 불린다. 이 명칭이 ‘오안네스’(Oannes)와 얼마나 유사한지 주목해 보라! 이러한 유사성이 이교주의의 혼합물이 기독교 안으로 쉽게 침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교도들의 시대에 이시스와 다이아나에게 신성한 날로 여겨진 8월 15일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동소승천 축일’로 개칭되어 오늘날까지 중요한 날로 기념되고 있다.¹⁶

이교주의에서 수용된 또 다른 날은 2월 2일이다. 이날은 마리아를 영화롭게 하는 날로서 ‘촛불 미사’ 또는 ‘복된 동정녀의 정결 축일’로 불린다. 모세의 율법은 남자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를 40일 동안 부정하게 여겼다(레 12장). 율법에 따라 정결 기간을 채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성전에 보이고 율법이 규정한 희생 현물을 드렸다(눅 2:22-24).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받아들였으므로, 2월 2일을 마리아의 정결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이날 촛불을 사용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교도들의 로마에서는 이 축제의 여신 페브루아(Februa)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횃불과 촛불을 들고 다녔다. 이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어 ‘2월’(February)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리스 사람들은 프로세르피나의 어머니인 케레스 여신을 위해 축제를 거행했는데, 프로세르피나가 촛불을 든 경축자들과 함께 지하 세계에서 케레스를 찾았다는 신화에 근거했다.¹⁷

이로써 2월 2일을 마리아의 정결일로 수용하고 ‘촛불 미사’로 부르게 된 것 이 촛불을 포함한 이교도 관습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날 그

14. 헤슬롭, 「두 개의 바빌론」, p. 114.

15. 「파우셋의 성경백과사전」, p. 510.

16. 두란트, 「문명의 역사: 신양의 시대」, p. 746.

17. 울린의 글에서, pp. 27-28.

해 카톨릭 의식에 사용될 모든 초가 축복받는다.

이 사진은 교황이 사제들에게 축복받은 초들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우리는 향이나 성수처럼 촛불이 일반적으로 이교도들의 예배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주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¹⁸



만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여 이 세대에 말씀을 선포한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배교한 교회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너희가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들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갈 4:8–11)

여기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교도들의 신들을 섬기다가 개종했음을 알 수 있다(8절). 그런데 이를 중 일부는 옛 예배로 되돌아갔다(9절). 그들이 준수한 날들과 절기들은 분명 이교도들의 신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든 날들이었음에 틀림없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바로 이러한 날들 중 일부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의 예배 속으로 통합되어 기독교화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의 증거들을 통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가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유래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모든 교회와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18. 「카톨릭 백과사전」, 제3권, p. 246, ‘촛불’ 항목.

를 지키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점에 대해 역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년에 하루를(혹은 일년에 한 주일을) 빼어 성탄절로 혹은 성탄 주일로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거나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 등의 거짓말을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연말 휴일이므로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이날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의미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나왔으므로 자신과 가족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각자의 양심에 따라 주(主)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제가 타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이날을 지키는 사람도 주(主) 안에서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주(主) 안에서 양심을 따라 지키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날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휴일로 즐겁게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 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음미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록 2

부활절에 대한 바른 이해

본문에서 저자는 부활절과 부활절 풍습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부활절 역시 기독교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부활 주일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와 마찬가지로 부활절 역시 그 기원을 살펴보면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나왔습니다.

본 부록에서는 먼저 「두 개의 바빌론」(Two Babylons, 알렉산더 히슬롭) 등을 통해 부활절의 기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끝에서 과연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천들이 부활 주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실제적인 조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활절의 기원

과연 부활절 준수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 과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달걀에 색칠을 했을까?

베드로나 바울이 부활절 이른 아침 예배를 드린 기록이 있는가? 물론 답은 분명하다.

‘부활절’(Easter)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흄정역 성경에 단 한 번 나타나고 있다.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행 12:4)

여기에서 ‘이스터’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모든 학자들이 알고 있듯이 ‘파스카’(Pascha)인데, 이는 유대인들의 유월절(Passover) 혹은 이교도들의 부활절을 가리킨다. 부활절, 즉 이스터란 단어가 원래의 의미를 볼 때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단어는 이교 여신, 즉 낮과 봄의 떠오르는 빛의 여신의 이름에서 나왔다. ‘부활절’, 즉 ‘이스터’란 에오스트레(Eostre), 오스테라(Ostera), 아스타르테(Astarte) 또는 이슈타르(Ishtar)의 현대적 표현으로, 히슬롭은 특히 후자, 즉 이슈타르가 오늘날 우리가 ‘이스터’라고 발음하는 것과 같이 발음되었다고 말한다.¹

많은 부활절 관습들이 비기독교 종교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고대 이교도들은 부활절 달걀을 색칠하고 숨겨 두었다가 찾아서 먹었다. 이러한 관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의 놀이와 장난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대 이교도들의 산물이며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

달걀은 바빌론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룩한 상징물로 여겨졌는데, 그들은 하늘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으로 떨어진 거대한 크기의 달걀 이야기를 믿었다. 고대 신화에 의하면 이 거대한 달걀로부터 아스타르테 — 이스터(Easter)와 동일함 — 여신이 부화되었고, 따라서 달걀은 그녀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²

고대 드루이드교도들 역시 달걀을 자기들 종교의 거룩한 상징물로 지니고 다녔다.³ 로마에서 케레스 여신의 행렬이 있을 때에는 달걀이 앞서 나아갔으

1. 히슬롭, 「두 개의 바빌론」, p. 103.

2. 동일 문서, p. 109.

3. 동일 문서, p. 108.

며,⁴ 바커스의 신비 종교에서는 달걀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중국에서는 염색하거나 색칠한 달걀을 성스러운 축제 때에 사용했으며, 고대 일본에서도 달걀에 놋색을 칠해 거룩하게 하던 관습이 있었다. 또한 북유럽 사람들도 이교도들의 시대에는 달걀에 색을 칠해 봄의 여신의 상징물로 사용했다.

다음 그림은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거룩한 달걀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 준다. 왼쪽 그림은 헬리오폴리스의 달걀이고 오른쪽 그림은 타이폰의 달걀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달걀이 태양, 즉 황금 달걀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으며⁵ 물들인 달걀을 부활절에 거룩한 제물로 사용했다.⁶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달걀이 다산과 다시 새로워진 삶을 상징하게 된 것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들은 봄 축제 동안 달걀을 색칠하고 먹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⁷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이교의 관습이 기독교와 관련을 갖게 되었을까? 분

4. 「종교백과사전」, 제2권, p. 13.

5. 동일 문서, p. 12.

6. 본윅(Bonwick),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Egyptians Belief*), p. 24.

7.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부활절」 항목.

명히 어떤 이들이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나오셨음을 제시하면서 달걀을 기독교화시켰다. 교황 바오로 5세(주후 1605–1621)는 이와 관련해서 기도문까지 지정했다.

오 주여, 간청하오니 당신의 피조물인 이 달걀들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달걀을 먹을 때 이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되게 하소서.⁸

「카톨릭 백과사전」의 다음 인용문은 상당히 중요하다.

사순절 동안에 달걀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절 날 부활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붉은색을 칠한 달걀을 테이블에 가져왔다.… 아마도 이 관습의 기원은 이교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축하는 이교도들의 많은 관습들이 부활절에 그 유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에서 널리 유행하던 관습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활절 불(Easter fire)은 마찰에 의해 나무로부터 발생시킨 새로운 불을 가지고 산에서 점화되었다. 이 관습은 이교주의에서 유래되어 유럽 전역에서 유행했는데, 이 불은 봄이 마침내 겨울을 이기고 승리함을 의미했다. 주교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부활절 불 사용에 대해 엄격한 칙령들을 내렸으나, 모든 곳에서 유행하던 관습들을 폐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다음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교회는 부활절 불이 구약 시대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부활절 행사 때에 이를 준수할 것을 채택했다.⁹

8. 히슬롭의 글에서, p. 110.

9. 「카톨릭 백과사전」, 제5권, p. 227, ‘부활절’ 항목.

이교도들이 관습들이 로마 교회에서 수용되어 기독교의 모습을 띠고 나타났는가? 그렇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부활절 토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토끼는 이교주의의 상징으로 항상 다산의 상징물이 되어 왔다.¹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활절 달걀처럼 부활절 토끼도 고대에 기독교화되었다. 토끼는 고대 이집트나 그 밖의 다른 지역의 전설에서 달과 관련되어 있다. … 토끼를 뜻하는 이집트어 ‘움’(um)이 ‘열린’(open)이라는 의미와 ‘기간’(period)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토끼는 달과 사람의 주기와 관련된 상징물로 여겨졌다. 또한 젊은 남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이는 결국 새로운 삶과 다산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토끼는 부활절 달걀과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¹¹

이렇게 해서 부활절 토끼와 부활절 달걀은 성적 중요성의 상징과 다산의 상징이 되었다.

부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일찍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절의 일요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에 이러한 예배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태양이 떠오를 때에 일어나지 않았다. 막 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는 여전히 어두웠으며,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새벽 예배는 고대 태양 숭배의 한 부분이었다. 물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태양을 숭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둑근 태양 모양의 제병(祭餅)이 있는 성체 현시기 앞에서 절하는 카톨릭교도들이 태양을 숭배한다고 말

10. 동일 문서.

1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러한 관습이 성경에 없으며 이교주의와의 혼합물임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구약의 에스겔 시대에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태양 숭배에 빠졌고, 그 것을 자기들 종교의 한 부분으로 삼았다.

그분께서 나를 주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스물다섯 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겔 8:16)

해가 떠오를 때 당연히 그것은 동쪽에 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의 대언자들도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알은 태양신도 되고 불의 신도 된다.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도전했을 때, 사실 그는 바알의 진영에서 바알 숭배와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바알의 대언자들이 바알을 부른 것은 언제인가? 바알, 즉 태양이 동쪽 수평선 위로 첫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들은 바알을 불렀다. 다시 말해 그때는 ‘아침’이요, 해가 뜨는 때였다(왕상 18:26).¹²

해가 떠오르는 것과 관련한 의식들은 여러 형태로 많은 고대 국가들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 이집트의 스피크스는 동쪽을 보도록 위치를 잡고 있다. 일본의 후지산에서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에게 기도를 드렸다.

순례자들은 산비탈을 오르면서 떠오르는 태양에게 기도를 한다. … 종종 흰 제복을 입은 수백 명의 신도(神道) 순례자들이 자기들의 거처에서 나와 떠오르는 태양에게 노래를 바치는 것을 볼 수 있다.¹³

로마의 이교주의자들인 미트라 교도들도 태양신에게 경배하기 위해 동틀 때에 함께 만났다.

‘이스터’(Easter)란 이름의 출처인 봄의 여신, 즉 이슈타르는 동쪽에서 떠오

12. 「스트롱의 성경용어색인」, No. 1242.

13. 도빈스, 「세계의 예배 이야기」, p. 330.

르는 태양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동쪽’(East)이라는 단어도 봄의 여신과 관계있다. 이와 같이 동쪽에서 해가 솟아오르는 것과 이스터(부활절)라는 이름 그리고 봄철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담무스는 살해당한 후에 지하 세계로 내려갔으나, 그의 어머니 ‘이슈타르’(Ishtar, Easter)의 통곡으로 인해 신비하게 봄에 살아났다고 한다. “이슈타르의 고통으로 인한 담무스의 부활은 매년 극적으로 재현되는데, 이는 농작물의 다산과 사람들의 다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남자와 여자들은 이슈타르와 함께 담무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신의 귀환을 축하하는데, 이는 그 여신으로부터 새로이 호의와 은덕을 얻기 위함이다!”¹⁴

새로운 식물이 싹을 내며 날 때,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원자’가 지하 세계로부터 나와서 겨울을 끝내고 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믿었다.¹⁵ 에스겔 대언자가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더라.”(겔 8:14)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매년 거행되는 이교도들의 봄 축제 의식과 교리들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음을 믿는다. 이는 단순히 자연계의 부활이나 또는 봄에 새로이 식물이 부활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부활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이 한 해의 봄에 있었기 때문에, 주후 4세기의 교회가 — 이때는 세속적인 교회가 이미 여러 면에서 원래의 기독교 믿음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 이교도들의 봄 축제를 기



이슈타르 여신

14. 스미스, 「인간과 그의 신들」, p. 86.

15. 올린, 「축제, 거룩한 날들 그리고 성인의 날들」, p. 89.

독교 안으로 흡수해서 통합시킨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흡수 통합에 관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큰 축제일을 기념하면서 이교도들의 많은 의식들과 봄 축제 관습들을 통합시켰다.¹⁶

전설에 따르면 담무스는 40세가 되었을 때, 멧돼지에 의해 죽었다고 한다. 히슬롭은 이 40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 여기에서 40일은 담무스가 땅에서 살았던 40년을 나타냄 — 이 기간이 ‘담무스를 위해 우는 날’로 정해졌다고 지적한다. 고대 사람들은 이 40일을 울고 금식하며 자신을 응징하는 날로 여겼는데, 이는 담무스의 은총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지하 세계로부터 나와 봄이 다시 시작되게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관습은 바빌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그리고 한동안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다. 히슬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교도들은 이 사순절을 담무스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연중 대축제에 없어서는 안 될 예비 기간으로 생각한 것 같다.¹⁷

로마 카톨릭교회가 봄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으므로, 그 축제에 앞서 옛날의 ‘금식’을 받아들인 것은 그러한 풍습 발전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이에 대해 매우 정직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4세기의 저술가들은 많은 행습들 — 예를 들어 사순절의 40일 금식 — 을 사도들이 정한 규정으로 묘사하려 했지만, 그렇게 주장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¹⁸

교황은 사순절, 즉 ‘거룩한 금식’ 기간에 사람들에게 고기나 그 밖의 다른 몇

16.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글에서.

17. 히슬롭의 글에서, pp.104, 105.

18. 「카톨릭 백과사전」, 제3권, p.484, ‘독신’ 항목.

가지 음식을 삼가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명령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때는 주후 6세기경이었다.

카톨릭 학자들 역시 자기들의 교회 안에 이교주의로부터 차용한 관습들이 남아 있음을 알며 이를 시인한다.¹⁹

그러나 그들은 비록 그러한 것들이 이교주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들을 기독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어떤 이교도 부족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교 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는 관습을 준수했을진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비록 이교도들이 동쪽을 향해 태양을 숭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새벽 일찍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비록 그분께서 새벽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한 예배가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비록 이교도들이 달걀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던 큰 바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사용하는 일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한마디로 이교신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여러 풍습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이 모든 진술이 논리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네가 가서 소유할 민족들을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끊어 버리시므로 네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땅에 거할 때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네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일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19. 동일 문서, 제11권, p.390, ‘이교주의‘ 항목.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신 12:29-32)

끝맺는 말

역자는 부활절 문제 역시 크리스마스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제 아이들에게 달걀을 만들게 하거나 부활절 토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순절이니 재의 수요일이니 하는 로마 카톨릭 전통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이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보고 아이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날이 휴일이므로, 집에서 쉬면서 몸과 마음에 재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크리스천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갈 6:14). 세상이 무어라 하든지, 이제는 내 마음에서 정한 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절들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알게 된 독자께서는 자신과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일 년 내내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이것만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록 3

침례, 세례, 유아 세례

본문에서 저자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말했으며, 또한 성경적 침례는 반드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주류를 이루므로 유아 세례와 약식 세례를 주는 것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두 틀렸으며 침례교인들만 — 혹은 침례를 주는 사람들만 — 옳으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장로교도, 감리교도, 침례교도 다 침례에 대해 많이 오해하지만, 역자는 결코 어느 편을 들려고 하지 않으며 단지 성경에서 침례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만 보여 주려 합니다. 국내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실제로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 심지어 침례교인들조차도 이 문제를 신중히 공부하고자 해도 마땅한 교재가 없는 탓에 혼동을 겪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하듯이, 이 문제 역시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성경 해석 방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침례’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침례인가, 세례인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세례를 주고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와 세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 행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례냐 세례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천주교의 영향으로 기존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침례의 참된 의미가 가려졌으며, 심지어 성경 구절 자체가 삭제되어 진리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글개역성경」에서 ‘세례’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밥티조’(baptizo, 스트롱 번호 907), ‘밥티스마’(baptisma, 908번), 그리고 ‘밥티스테스’(Baptistes, 910번) 등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 ‘밥토’(bapto, 911번)에서 나왔으며 신약 성경에 총 115회 사용되었는데, 용례별로 살펴보면 명사 ‘밥티스마’가 23회,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밥티스테스’가 15회, 그리고 동사 ‘밥티조’가 77회 쓰였습니다.

한편 「한글개역성경」과는 달리 「바인의 신약성경단어사전」, 「국제표준성경 백과사전」, 「엉거의 성경사전」, 「스트롱의 용어색인」 등 기독교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참고 문헌들과 신학적 편견 없이 영어 단어 자체의 뜻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정평이 난 「옥스퍼드 영어사전」 등의 세속 문헌들은 한결같이 이 단어들의 의미가 ‘물로 뿌리는 세례’(sprinkling)가 아니라 ‘물속에 담그는 침례’(immersion)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원 자체가 너무나 분명한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로 바뀌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성경대로 침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중국 성경과 한국 성경에만 이 단어들이 세례로 번역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침례가 세례로 바뀐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진출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세례를 주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 정도를 차지하므로, 다수 결의 논리를 따라 세례가 옳고 침례가 그르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국인들만의 하나님 아니시고, 다른 민족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침례를 주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침례가 맞고 세례는 틀린다는 말인가요? 과연 하나님께서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실까요?

침례는 중요한 성경의 교리일 뿐 아니라 성경 본문의 전달 과정에 마귀가 개입한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가 되므로, 성경에 근거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문제 역시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성도들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 그 판결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의 침례

침례를 주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나, 세례를 주는 데는 많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많은 물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으니 (요 3:23)

침례를 받으려면 물 있는 곳에 가야 하지만,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행 8:36)

침례를 받으려면 ‘물속으로’(into the water) 내려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시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행 8:38)

침례는 ‘강 속에서’(in Jordan) 받으나,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마 3:6)

침례를 받은 후에는 ‘물속에서’(out of the water) 나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시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행 8:39)

성경은 한결같이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불 침례와 성령 침례 역시 ‘잠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침례자 요한]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예수님]은 나보다 더 강력하시므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달릴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마 3:11-12)

이 구절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성령 침례가 곧 불 침례이므로 뜨거운 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침례자 요한은 이 구절에서 결코 그러한 것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문맥과 함께 이 구절을 읽어 보면, 성령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곳간,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 침례를 받는 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에서 침례, 즉 ‘몸 전체가 잠기는 것’과 세례, 즉 ‘이마에

뿌리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성령 세례를 받아 이마에만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서 과연 이마에만 불이 붙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침례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몸이 물속에, 성령님 안에, 불 속에 잠기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침례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면서 특별히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임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규례입니다.



세례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일어나는 것, 즉 사망과 매장과 부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골 2:12)

세례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상징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롬 6:3-4)

세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이 옷 입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 3:27)

침례의 대상

어떤 이들은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침례 중생’ 교리를 믿고 가르칩니다. 특히 유아 세례를 주는 천주교에서는 이 의식을 통해 사람이 거듭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 중생’을 지지하지 않으며,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 자기의 거듭남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및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고 거듭난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행 8:12).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 주며, 이 과정 속에서 크리스천 교회가 어떤 일을 실행했는지 보여 줍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이때 처음으로 빌립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26-40절).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장면에서 「한글개역성경」은 이상하게 37절을 삭제하고 “없음”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원래 이 구절이 없었다면 그다음 구절들이 한

절씩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군가가 자기의 교리나 신학을 세우기 위해 고의로 이 구절을 삭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36절에서 내시는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이 37절에 나오고 내시는 그 답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행 8:37)

이 부분에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37절을 친히 기록하신 것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근거로 인해 초대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침례를 받아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교도들의 믿음과 연합한 천주교가 생겨났습니다. 중세 암흑시대를 주도한 천주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들의 체제 하에 가두기 위해 유아 세례라는 비성경적 관행을 도입하여 믿음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어 어려서부터 천주교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이 이러한 비성경적 관행에 큰 거침돌이 되었기에 그들은 과감히 성경 본문에서 이 구절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천주교의 유아 세례

니다. 그 결과 「한글개역성경」,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근거한 역본에는 이 중요한 구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본문에서 번역된 「킹제임스 흡정역성경」은 이 구절을 잘 보존하여 천주교의 유아 세례 교리가 허구임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절이 없으면 앞뒤 문맥이 통하겠습니까?

침례의 시기

천주교에서는 어른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교리문답서 공부를 위한 학습 기간을 두는 전통을 세웠으며,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세례를 줍니다. 또한 천주교인들은 세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대성사’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가 아닐 뿐더러 구원 또는 은혜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엡 2:8-9).

성경은 이 같은 천주교의 관행과는 달리 누구든지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믿음 고백과 함께 즉시 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6장의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믿는 즉시 침례를 받았으며(13-14절) 같은 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 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 (행 16:33)

침례의 방법

위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은 요르단 강에서, 어떤 사람은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즉, 몸을 담글 수 있는 곳이면 강이든 호수든 바다든 침례탕이든 상관없습니다. 침례가 교회의 회원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자라면 누구나 침례를 줄 수 있으나, 지역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목사나 혹은 교회에서 정한 성도 대표가 침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부분 미국 침례교회들이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행할 때에 침례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편한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고, 침례를 주는 사람은 먼저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믿음의 고백을 요청합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침례를 줍니다.

○○○ 형제/자매님의 믿음 고백과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선포한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같이 죽었다가”(In the likeness of His death)라고 말하면서 침례받는 사람을 뒤로 눕혀 물속에 잠근 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같이 살아났습니다.”(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라고 말하면서 그를 물속에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형제/자매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매장되었고,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침례는 명령이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 14:21)

예수님의 명령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마 28:19)

주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불순종의 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약 4:17)

많은 이들이 침례를 받으면 침례교인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좋은 크리스천이 됩니다.

중세 암흑시대의 절정기에 종교 재판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당시 천주교 사제는 종교 재판소에 끌려온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물로 뿌리는 유아 세례가 맞는가? 아니면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맞는가?

사제의 이 질문에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이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손을 뒤로 묶인 채 물속에 던져져 수장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바른 성경, 바른 진리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숫자를 따라 전통대로 세례를 고집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대로 침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례는 무효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필자 역시 전통대로 세례를 받았으나, 후에 성경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잘못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행 19:1-5). 이 귀한 침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역자의 경험

예전의 감리교나 장로교의 장정을 보면 침례나 세례 중 어느 것을 택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감리교나 장로교는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 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 점은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혹은 침례교인이든,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대로 성경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카톨릭교회가 동방 정교와 서방의 로마 카톨릭교회로 나뉘기까지는(11세기 경) 기독교계의 100%가 침례를 행했고, 유아 세례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리가 일어난 뒤에도 그리스 정교 및 러시아 동방 정교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내에서는 12세기가 지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사람의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으며 유아 세례라는 의식이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제가 영아 세례(영세)를 주게 되면, 그 아이가 거듭나서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식을 통해 모든 시민들을 태어나자마자 천주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중세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바티칸의 손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종교가 국가 위에 서게 됨으로써 전 국민은 영세를 받게 되었고,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역사가들조차도 그 기간을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루터와 칼빈 등을 통한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예식 면에서 여전히 천주교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또한 성공회 목사였던 요한 웨슬리 역시 복음을 전파하고 놀라운 구령 사업을 전개했지만, 성공회의 관례대로 세례 및 유아 세례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침례를 믿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그는 침례를 행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세례를 주지 않고 침례를 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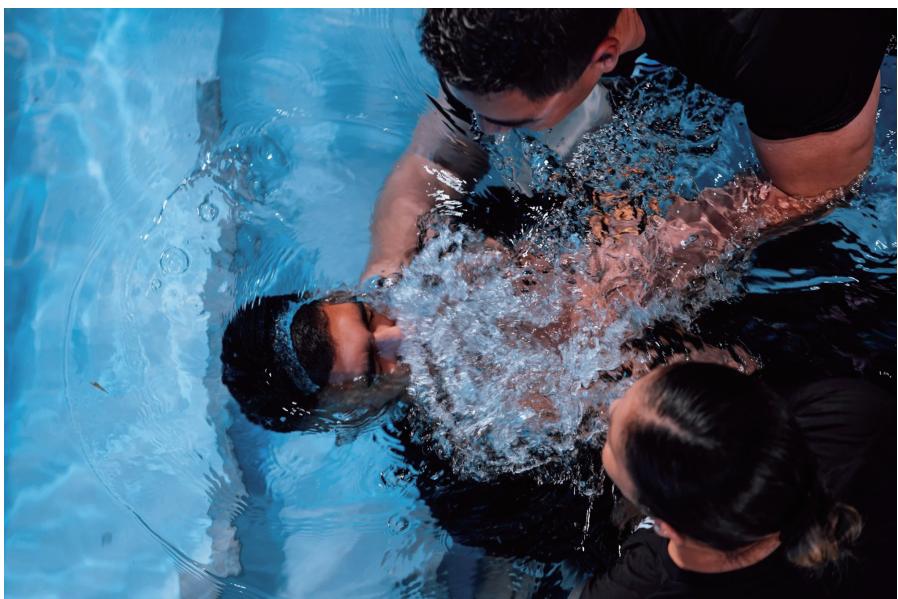
역자 역시 한때는 감리교인으로 대학교 다니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큰딸과 둘째 딸 역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며 성경 말씀을 깨달은 뒤, 침례가 옳고 유아 세례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았는데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거의 몇 년 동안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며, 또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뒤 저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곧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통감하고 아내와 함께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두 딸(15살, 11살)도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받아 보니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제 신분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주님께서 신약 교회에게 명령한 침례에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기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정표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같이 침례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록 4

성경 교리 문답

천주교인들은 ‘교리 문답’(Catechism)을 비성경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근본적 성경 신자들은 이를 사전적 의미로, 즉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정리된 성경 교리”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교리 목록은 크리스천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경적 교리 문답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성경의 원리들을 모은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 같은 성경의 교리들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일이 중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1.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창 1:27; 롬 33:4).

2. 하나님께서는 사람 외에 또 어떤 것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창 1:1-31; 신 10:14; 뉴 9:6; 요 1:3).

3.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과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저와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대상 16:28; 롬 11:36; 고전 6:20; 10:31).

4.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시 90:2).

5. 하나님에게 시작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입니다(시 90:2; 93:2; 계 4:8).

6. 하나님도 언젠가는 죽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시 90:2).

7.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미 6:8; 요 15:8; 요일 5:3).

8. 당신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으며 항상 저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시 117:1-2; 146:5-10).

9.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존재합니다(사 45:6, 18, 21-22; 딤전 2:5).

10. 이 한 하나님은 몇 분으로 존재하십니까?

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며 이를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마 3:16-17; 28:19; 고후 13:14).

11. 한 하나님의 세 분은 누구입니까?

한 하나님의 세 분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입니다(마 28:19).

12.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요 4:24).

13.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시 90:2; 139:7–10; 말 3:6).

14.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모든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대하 2:6; 시 139:7–12; 잠 15:3).

15.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를 보고 계십니다(렘 23:23–24; 요 1:18).

16.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욥 34:21; 갤 11:5).

17.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 19:26).

18.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신 30:11–16; 수 1:8).

19. 누가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성령님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벧후 1:21).

20. 우리의 첫 번째 조상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조상들은 아담과 이브입니다(창 2:7, 18–22; 3:20).

2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번째 조상들을 언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땅의 흙으로부터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몸으로부터 이브를 만드셨습니다(창 2:7, 21–22).

22.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육체 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결코 죽을 수 없는 혼과 영을 주셨습니다(창 2:7).

23. 당신은 육체뿐만 아니라 혼과 영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결코 죽을 수 없는 혼과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전 12:7; 막 8:36; 살전 5:23).

24. 당신이 혼과 영을 가지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라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5.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어떠한 상태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창 1:27–31).

26.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인격체 사이에 맺는 약속입니다(창 9:11–17; 시 105:8–11).

27.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에서 아담이 에덴동산에 머물기 위해 지켜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창 2:15–17).

28.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창 3:6).

29.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롬 5:14; 6:23; 앱 2:3).

30.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을 보시고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육체적 죽음과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처벌을 내리셨습니다(창 3:17–24; 룸 5:12).

31.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요일 3:4).

32.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대상 10:13; 시 25:6–7; 마 15:3–6).

33.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악한 영으로서 하나님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적자이며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마 13:39; 뉴 22:3; 요 8:44; 벤전 5:8).

34. 사탄도 한때 선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탄도 아주 오래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존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사 14:12–15).

35. 사탄이 하나님의 선한 영적 존재였을 때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사 14:12).

36. 그러면 오늘날에는 왜 루시퍼가 하나님의 선한 종이 아닙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같이 위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에서 내쫓으셨습니다(사 14:12–15; 계 12:7–9).

37. 오늘날 루시퍼는 무엇이라 불립니까?

오늘날 루시퍼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불립니다(뉴 10:18; 요일 3:8; 계 12:9).

38.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합니다(요일 3:8; 4:4).

39.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항상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대상 21:1; 요 8:44; 엡 6:11-12, 16).

40. 우리의 첫 번째 조상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창 2:17; 3:6).

41.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그러한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 이브를 유혹했고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창 3:1-6).

42. 우리의 첫 번째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하고 행복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죄가 있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창 3:8-24).

43.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죄성을 받게 되었으며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롬 5:12).

44.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원죄라고 합니다(시 51:5; 롬 5:12).

45. 모든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창 2:17; 시 89:30-32; 갈 3:10).

46.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사람이 되셨으며, 그리하여 한 인격체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두 본성을 가지셨던 분입니다(요 14:6; 행 4:12).

47. 사람이 천국에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심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요 3:3, 16; 5:24; 14:6; 행 4:12).

48. 회심, 즉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곧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겔 36:26–27; 딤 3:5–6).

49. 그러면 누가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딤 3:5).

50.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 성령님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딛 3:4–7).

51.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친절입니다(신 7:6–9; 롬 3:22–24; 5:1–8, 19–21; 엡 2:8–9).

52.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고후 5:21; 빌 3:10; 히 5:8–9; 9:11–14; 10:11–22).

53.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갈 2:16; 엡 2:8–9; 딤 3:4–7).

54.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순결한 분이십니다(사 53:9; 고후 5:21; 히 4:15; 7:26; 베전 2:21-23).

55.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롬 5:1-21; 빌 2:7-8; 3:10; 히 2:9; 5:8-9).

56. 속죄란 무엇입니까?

속죄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롬 5:8-11).

57.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거룩히 구별하십니다(고전 6:11; 갈 2:16; 딤 3:5-7; 히 2:9-11).

58. 칭의, 즉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칭의란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셔서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롬 3:24-25; 8:1; 고후 5:19, 21).

59. 당신은 어떻게 칭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 인해 칭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행 13:39; 르 3:25-28; 갈 2:16).

60. 성화, 즉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화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행위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고전 6:11, 19-20; 엡 1:3-4; 4:22-24; 살전 5:23; 딤후 2:19-21; 히 13:12, 21).

61. 성화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성화의 두 가지 요소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롬 8:13; 갈 2:20; 골 3:5).



62.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순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순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롬 5:8).

63.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눅 23:33–38; 갈 3:13; 빌 2:8).

64.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사 55:7; 뉴 13:3; 24:47; 요 3:16; 6:47).

65. 회개란 무엇을 뜻합니까?

회개란 죄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기 때문에 죄를 후회하고 미워하고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대하 7:14; 고후 7:9).

66.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롬 3:22–25; 갈 2:16; 빌 3:9; 히 12:2).

67. 당신 자신의 힘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요 3:5–6; 16:7–11; 고전 2:9–12; 딤 3:5).

68.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9.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얼마 동안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70.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창 15:6).

71.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림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히 11:4).

72. 그러한 희생 헌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까?

그러한 희생 헌물은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요 1:29, 36; 히 9:11–14).

73.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습니다(행 3:22; 히 5:5–6; 계 19:16).

74. 예수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직분은 대언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사 9:6–7; 뉘 4:18; 행 3:22; 히 4:14–15; 5:5–6; 계 19:16).

75.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대언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눅 4:18; 요 15:15).

76.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제사장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롬 3:25–26; 8:34; 히 7:25–27; 9:14, 28).

77.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시 27:1–5; 사 33:22; 고전 15:25).

78.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몇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출 20:1–17).

79. 그 십계명은 때때로 무엇이라 불립니까?

그것은 모세의 도덕법이라 불립니다.

80. 십계명 가운데 처음의 네 가지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처음의 네 가지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출 20:1–11; 마 22:37–38).

81. 나머지 여섯 가지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머지 여섯 가지 명령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출 20:12–17; 마 22:39).

82.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마 22:37–40).

83.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모든 사람이 저의 이웃입니다(눅 10:25–37; 갈 6:10).

84.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5.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편 7편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86. 그러면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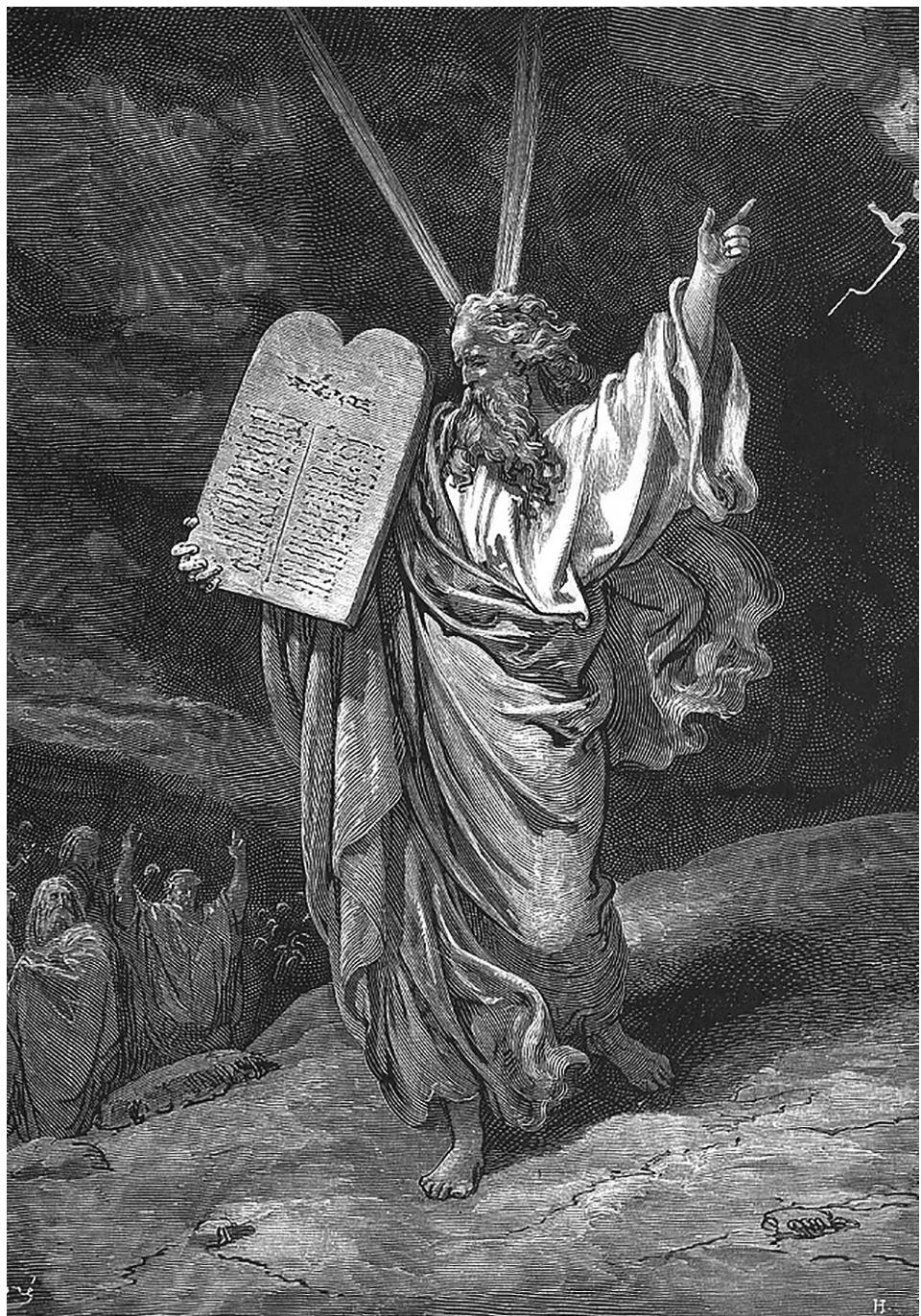
첫 번째 명령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출 20:3).

87. 첫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출 34:14; 신 26:17; 마 4:10).

88.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입니다(출 20:4–6).



구스타브 도레_모세의 십계명

89. 두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두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것과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출 20:23; 신 6:13–18; 12:30–32).

90.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명령은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출 20:7).

91. 세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경외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시 29:2; 107:21–22; 138:2; 계 15:3–4).

92. 네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네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출 20:8–11).

93. 네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네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레 19:30; 신 5:12).

94.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중 어느 날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까?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라 하는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 하는 첫째 날, 즉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요 20:19–26; 행 20:7; 고전 16:1–2).

95. 왜 그날을 주일이라 부르며 그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마 28:1-6; 막 16:1-6; 뉴 24:1-6; 요 20:1-9).

96.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주일에는 마땅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보내야 합니다(레 23:3; 시 92:1-2; 사 58:13; 뉴 13:10-13; 행 15:21; 16:13; 17:2).

97. 다섯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명령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입니다(출 20:12).

98. 다섯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다섯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롬 13:1; 엡 6:1-3).

99. 여섯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명령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출 20:13).

100. 여섯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섯 번째 명령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 것과 해를 끼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창 9:6; 마 5:22; 갈 5:15; 요일 3:15).

101. 일곱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명령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출 20:14).

102. 일곱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일곱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 것과 마음과 언어와 행위에 있어서 순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고전 7:2; 엡 4:29; 5:3-4).

103. 여덟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명령은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출 20:15).

104. 여덟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덟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 것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할 것과 정직하고 근면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출 20:15; 앱 4:28; 살전 4:11-12).

105. 아홉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명령은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입니다(출 20:16).

106. 아홉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홉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잠 14:5; 속 8:16; 벤전 3:16).

107. 열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열 번째 명령은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 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입니다(출 20:17).

108. 열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열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탐내지 말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고전 13:4; 갈 5:26; 빌 4:11; 히 13:5).

109.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용이 있습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주고 또 구원자가 필요함을 보여 줍니다(신 29:29; 수 1:7-8; 갈 3:21-26; 약 2:10).

110.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로 약속하신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시 10:17; 요 16:23; 빌 4:6; 요일 5:14).

111.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요 16:23).

112.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이는 타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대로 합당하게 기도를 드리라고 모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마 6:9-13).

113.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뺨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 빚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마 6:9-13)

114. 주기도문에는 몇 가지 청원이 들어 있습니까?

주기도문에는 여섯 가지 청원이 들어 있습니다(마 6:9-13).

115. 첫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마 6:9).

116. 첫 번째 청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시 67:1-3; 145:1-13; 사 64:1-2; 롬 11:36; 살후 3:1).

117. 두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마 6:10).

118. 두 번째 청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할 것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시 67:1–3; 68:1; 롬 10:1; 살후 3:1; 계 22:20).

119. 세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마 6:10).

120. 세 번째 청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시 103:20–22; 119:34–36; 행 21:14).

121. 네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청원은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마 6:11).

122. 네 번째 청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과 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잠 10:22; 30:8; 딤전 4:4–5).

123. 다섯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 빚들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마 6:12).

124. 다섯 번째 청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

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시 51:1; 마 6:14-15; 18:21-22, 35; 뉴 11:4; 롬 3:24-25).

125. 여섯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청원은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마 6:13).

126. 여섯 번째 청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었을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시 19:13; 51:10, 12; 마 26:41; 고전 10:13).

127. 규례란 무엇입니까?

규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수단입니다(롬 6:3-10; 고전 11:23-26).

128. 성경에는 몇 가지 규례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마 28:19; 고전 11:23-26).

129. 그 두 가지 규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규례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마 26:26-28; 28:19).

130. 누가 이 규례들을 정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정하셨습니다(마 26:26-28; 28:18-19).

131. 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규례를 정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또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 이 규례들을 정하셨습니다(행 2:38-41; 롬 6:4).

132. 침례에서는 어떤 표적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됩니까?

침례에서는 물이 표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는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외적으로 드러내어 보입니다(마 3:6, 11, 14-17).

133. 침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침례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과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어 보여 주는 표적입니다(롬 6:3–11; 갈 3:27).

134.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마 28:19).

135.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마 26:26–28; 막 14:22–25; 눅 22:17–20; 고 전 11:23–26).

136. 주의 만찬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의 만



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고전 11:28–29).

137.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것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포도즙입니다(마 26:26–28; 막 14:22–25).

138. 주의 만찬에서 사용되는 빵과 포도즙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빵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며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 흘려 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마 26:26–28; 막 14:22–25; 뉴 22:17–20).

139.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무덤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마 16:21; 28:1–6; 롬 6:4; 고전 15:3–4).

140.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행 1:9; 엡 1:19–21; 히 4:14–16; 7:25).

141.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다가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요 14:1–3; 행 1:11).

142.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마 24:42, 50; 25:13).

143. 재림의 두 단계는 무엇입니까?

재림은 성도들의 휴거를 위한 공중 강림과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지상 강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고전 15:51–52; 계 19:11–16).



144. 휴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휴거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살리시고 또 살아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썩지 않는 육체를 주십니다(고전 15:51-52; 살전 4:15-17).

145.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지상에 강림하실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살후 1:7-10; 계 19:11-16).

146.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창 3:19; 롬 6:23).

147. 심판 날에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악한 자들은 죽어서 곧바로 지옥에 가고 최종적으로 영원토록 불 호수에 던져 집니다(시 9:17; 계 20:11-15).

148.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무시무시하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마 25:41, 46; 막 9:43; 놀 16:19-26; 계 20:10, 13-15).

149. 그러면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자들은 죽어서 곧바로 천국에 가고 최종적으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 거합니다(마 5:11-12; 25:46; 요 10:28; 14:1-3; 골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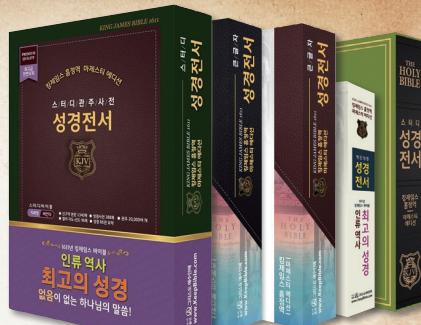
150.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광스럽고 행복한 곳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요 14:1-3; 살전 4:17; 계 7:15-17; 21:3-4, 22-27; 22:1-5).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히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일기 쉬운 자료들이 걸려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돋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를 물론 성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이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험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파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해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응혜 복음 책스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편집/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묵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자연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체,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고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베리칩 등 종말론 충전지!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주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흡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흡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 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터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영/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매파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뷔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웅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자!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짧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 (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훈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디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흄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려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별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별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불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중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전리이시기 때문이다. 7 하늘에 중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끌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흄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03230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ISBN 978-89-951587-8-4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값 8,000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Where Do Little Children Go When They Die?

아이가 영영 돌아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내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던 슬픔의 빛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자 아내의 얼굴은 이내 기쁨과 평안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제게 잊지 못하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힘겨운 인생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는 저와 사랑하는 아내 조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맡겨 주신 세 아이들이 함께 하늘의 정원을 거닐게 되겠지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가족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탐스럽게 피어 있는 그 작은 꽃을… - 앤 레이시(Al Lacy)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같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도 그리하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시 127:3-5)

제1장 ★ 하나님의 유산

제2장 ★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제3장 ★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제4장 ★ 비성경적인 유아 세례

제5장 ★ 연자방아 맷돌

제6장 ★ 유산된 아이들

제7장 ★ 아이들은 천국에서도 아이들일까요?

부록 1 ★ 크리스마스에 대한 바른 이해

부록 2 ★ 부활절에 대한 바른 이해

부록 3 ★ 침례, 세례, 유아 세례

부록 4 ★ 성경 교리 문답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품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성경공부

값 12,000원